金匱要略・水氣病脈證并治第十四에 대한 연구

노승조 · 박금숙¹ · 권미자 · 이영섭 · 정헌영*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진단학교실, 1: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Study On the 'Diagnosis and Trearment of Edema' in the Chapter 14 of Synopsis of Golden Chamber

Seung Jo Ro, Kum Sook Park¹, Mi Ja Kwon, Yong Seop Yi, Heon Young Jeong*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Wonkwang University, 1: Department of Oriental Medicine Graduate School Wonkwang University

This thesis is written about the causes, the processes and the treatments of edema. It consists of 31 chapters. Covering 11 chapters, there are prescriptions and constructions. When one of the organs fails to work metabolizing water, you can have edema. It is the result of the accumulation of excess fluid under the skin. Edema most commonly occurs in the head facial, the palpebral portion, the feet and legs or all the body. Sometimes it is accompanied with ascites. There are three classifications in the thesis. First, according to the cause and the symptom of disease, it is divided into 5 types. Type 1. The swelling caused by the disorder of the lungs from the troubling wind. Type 2. The swelling caused by the weak spleen. Type 3. The swelling caused by abnormal condition between the kidneys and the lungs. Type 4. The swelling in abdomen caused by the weak kidneys. Type 5. The swelling (Yellow sweat) caused by the heat inside body as water outside. Second, the swelling and the abnormal symptom of five viscera. Third, the swelling accompanied with menstruation in female and with chilliness. In short, the original textbook is showed that the treatment of edema focuses on the cause and the region of fluid accumulation. When the swelling is in the upper body or the cause of diseaseis outside, the useless humidity can be expelled through sweating. On the other hand, when the swelling is in the lower body or the cause of disease is inside, it is pushed out by urination. In this book, the author presents further treatments. And these treatments are often cited by doctors after ages. Even one of them suggested that the swelling be divided by cosmic dual forces. In spite of many researches, it is too complicate for us to understand the writer's intend. For that reason, comparing with other medical books and referring to guides explained by doctors, I have studied the textbook to help understand.

Key words: Edema, Diagnosis and Trearment of Edema(水氣病脈證幷治), Synopsis of Golden Chamber(金匱要略)

서 론

『金匱要略・水氣病脈證病治第十四』는 水氣病의 病因,病理,辨證과 治療에 대하여 論述하였다. 本篇은 모두 三十一條로 구성되어 있으며 十六條는 處方이 없고,十一條에는 處方이 있으며, 이 가운데 杏子湯은 處方構成이 나와 있지 않고, 또 防己黃芪湯과 蒲灰散은 다른 편에 나와 있어 處方의 構成까지 나와 있는

* 교신저자 : 정헌영,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jikjae@wonkwang.ac.kr, · Tel: 063-850-6808

·접수: 2008/01/10 · 채택: 2008/02/04

것은 모두 열 가지이다.

『素問·評熱病論』에 "모든 水氣病은 경미한 浮腫이 먼저는 밑에 나타난다."고 하여1) 後代에 水氣는 病因과 病證으로서 浮腫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水氣病은 인체의 正常的 水液代謝가 되지 않아 水液이 體內에 쌓이고 全身의 皮膚로 넘쳐나頭面部, 眼瞼部, 四肢, 또는 全身의 浮腫 또는 腹水를 수반하는 것이다.

本篇은 水氣病을 風水, 皮水, 正水, 石水, 黃汗, 心水, 肝水, 脾水, 肺水, 腎水, 水分, 氣分, 血分의 열세가지로 분류하였다.

¹⁾ 素問・評熱病論: 諸有水氣者는 微腫이 先見於目下也니이다

風水는 外邪가 침습하여 肺가 通調水道를 하지 못하여 浮腫이 되고, 皮水는 脾虛하여 濕이 盛하여 일어나는 것이며, 正水는 그 근본이 腎에 있고 標는 肺에 있는 것으로, 石水는 또한 腎과 관련되어 腎陽이 虛衰하여 水氣를 運化하지 못하여 특히 腹部에 浮腫이 나타나는 것이다. 黃汗은 누런색의 땀이 나는 것으로 인하여 부쳐진 이름으로 病因이 外部로부터 水濕이 침범하여 浮腫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篇에서 함께 논하였다.

水分은 먼저 水腫이 발생한 후에 月經에 異常이 발생한 것이고, 血分은 먼저 月經의 異常이 발생한 뒤에 水氣가 정체되어 浮腫이 일어난 것이며, 氣分은 寒氣가 막혀서 水飲이 머물러 浮腫이 일어나는 것이다.

일찍이 內經에 風水2, 石水3, 涌水4)등의 記載가 있고, 水腫의 病理機轉을 肺와 腎으로 보고 있으며,5 治法에 있어서는 表邪로 인한 水腫은 發汗시키고, 裏部에 있는 邪氣로 인한 水腫은 利小便할 것을 제시하였다.67)

本篇은 內經을 기초로 하여 이를 더욱 발전시켜 水腫의 發生이 肺, 脾, 腎, 三焦, 膀胱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五臟水로 구분하고 이외에도 月經과 浮腫사이에 관련이 있어서 氣分, 血分, 水分을 提示하였다. 水腫의 治法에 있어서도 內經의 이론을 구체화하여 發汗, 溫陽, 利水와 健脾溫腎 등의 방법으로 발전시켰다.

『千金要方』, 『諸病源候論』, 『外臺秘要』 등의 醫書에 水腫의 病理와 治療에 本篇의 내용을 많이 引用하고 또한 金元時代의 『丹溪心法』에 水腫을 陽水와 陰水로 區分하는 등, 後世醫家들의 水氣病의 辨證과 治療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나 원문의 내용이 복잡하여 이를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에 校勘을 하고 여러 註釋書를 참고하여 本篇의 이해를 돕고자 研究하였다.

연구방법

本 論文은 原文의 懸吐・校勘・註釋・國譯・考察・結論의 順序로 研究が領다

- 1. 본 논문의 原文은 『金匱要略方論』 8)을 底本으로 하였으며, 작은 글자로 된 文章도 모두 收容하였다.
- 2. 懸吐는 蔡의 『金匱要略精解』 9를 참고하였다.
- 3. 校勘은 表1의 文獻을 參考하였다.
- 4. 註釋은 表2의 文獻 가운데 著者가 原文을 理解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한 註釋을 실었으며, 책을 구하지 못한 것은 李克光의 『金匱要略』과 陳紀藩의 『金匱要略』에서 再引用하였으며, 註釋의 原文은 懸吐와 國譯을 하였다.
- 5. 原文에 편의상 條文番號와 題目을 달았다.
 - 2) 素問·水熱穴論: 水爲風激而上行也
 - 3) 素問・陰陽別論: 少腹腫硬如石하고 有聲如水也라
 - 4) 素問·氣厥論: 腎之水氣上涌於肺也
 - 5) 素問・水熱穴論: 腎者는 至陰也니 至陰者는 盛水也요 肺者는 太陰也요 少陰者는 冬脈也라 故로 基本在腎하고 其末在肺이나 皆積水也니이다 腎者는 胃之關也니 關門不利 故로 竪水而從其類也 8
 - 6) 素問・湯液醪醴論: 開鬼門하고 潔淨府라
 - 7) 素問・陰陽應象大論: 其高者는 因而越之하고 其下者는 因而竭之라
 - 8) 裕昌德書店: 金匱要略方論,臺灣東方書店,臺北市,1960
 - 9) 蔡仁植: 金匱要略精解, 東洋綜合通信教育出版部, 大邱, 1982

6. 본 논문에 사용한 부호는 校勘에 ')', 註釋에 '()', 引用文獻에 '『』', 引用篇과 論文에 '「」'로 표시하였다.

表 1. 校勘한 文獻 및 略稱

번호	書名	編著者	略稱	備考
1	金匱要略方論	兪橋	俞本	陳紀藩의
2	金匱要略直解	沈明宗	直解	『金匱要略』에서 再引用
3	金匱方論衍義	趙以德	衍義	李克光의 『金匱要略』에서 再引用
5	千金要方	孫思邈	千金	
6	外臺秘要	王燾	外臺	
7	諸病源候論	巢元方	病源	
8	古今醫統正脈全書	王肯堂	醫統	
9	脈經	王叔和	脈經	
10	金匱要略方論本義	魏荔洞	魏本	
11	金匱要略心典	尤怡	尤本	
12	金匱要略淺註補正	唐宗海	補正	
13	金匱要略	李克光	李本	
14	東醫寶鑑	許俊	寶鑑	

表 2. 註釋의 書目 및 略稱

번호	書名	著者	略稱
1	醫門法律	喻嘉言	喩
2	金匱要略編注	沈明宗	沈
3	金匱要略方論本義	魏荔彤	魏
4	金匱要略心典	尤怡	尤
5	醫宗金鑑・金匱要略注	吳謙	吳
6	金匱要略淺注	陳念祖	陳
7	金匱要略廣注	李彣	李彣
8	金匱玉函要略輯義	丹波元簡	丹波
9	金匱縣解	黃元御	黃
10	金匱要略淺註補正	唐宗海	唐
11	金匱要略發微	曹家達	曹
12	金匱要略論註	張機	張
13	金匱方論衍義	趙以德	趙

연구내용

第 1條. 水氣病의 다섯 가지 類型과 脈證

【原文】

師曰 病(1)有風水 有皮水 有正水 有石水 有黃汗이라 風水는 其脈이 自浮(2)하고 外證은 骨節疼痛惡風1)이요 皮水는 其脈이 亦浮하고 外證은 附腫2)(3)하야 按之沒指하고 不惡風하고 其腹이 如鼓하고 不渴3)하니 當發其汗이요 正水는 其脈이 沈(4)遲(5)하고 外證은 自喘(6)이요 石水는 其脈이 自沈하고 腹滿不喘4)이요

黄汗은 其脈이 沈遅하고 身發熱5)胸滿하고 四肢頭面腫6)하 ・ 久不愈7)면 必致癰膿이라

- 1) 惡風 : 『千金・卷四』, 『外臺・卷二十』, 『脈經・卷第八』에는 "其人惡風"으로 되어 있다.
- 2) 附腫: 『千金·卷四』에는 "浮腫"으로 되어 있다.
- 3) 其腹如鼓 不渴:『千金・卷四』,『外臺・卷二十』에는"其腹如鼓 不滿不渴"로,『病源・皮水候』에는"腹如故 而不滿亦不渴"로 되어 있다.
- 4) 腹滿不喘: 『醫統』, 『李本』에는 "外證 腹滿不喘"으로 되

어 있다.

- 5) 身發熱: 『千金・卷四』, 『外臺・卷二十』, 『脈經・卷第八』에는 "身體發熱"로 되어 있다.
- 6) 四肢頭面腫: 『千金・卷四』에는 "四肢頭面幷腫"으로 되어 있다.
- 7) 久不愈: 『外臺・卷二十』에는 "久未愈"로 되어 있다.

【註釋】

- (1) 病: 偏名이나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水氣病을 가리킨다.
- (2) 浮(부): 浮脈, 浮脈은 가볍게 누르면 脈狀이 잡히고, 무겁게 누르면 힘이 조금 減少되나 속은 비지 않으며, 손가락을 들면 손가락에 가득 차며 힘이 있는 脈狀이다.10)
- (3) 附腫(부종): 膚肉浮滿也, 皮膚浮腫을 가리킨다.¹¹⁾ (*附: 腫也, 종기 부)
- (4) 沈(침): 沈脈. 沈脈은 손가락을 가볍게 누르면 脈이 感應되지 않고, 무겁게 눌러야 잡히는 脈狀이다.12)
 - (5) 遲(지): 遲脈. 遲脈은 1呼吸에 3번 搏動하는 脈象이다.13)
 - (6) 喘(천): 喘息. 숨이 찬 것

【國譯】

스승께서 말씀하기를 水氣病에는 風水, 皮水, 正水, 石水, 黃 汗이 있다. 風水는 그 脈象이 본래 浮하고 밖으로 나타나는 증상 은 골절이 아프고 惡風을 한다. 皮水는 脈象이 또한 浮하고 밖으로는 나타나는 증상은 皮膚가 浮腫하여 누르면 손자국이 생기며, 惡風하지 않고 腹部가 북처럼 부풀어 오르고 갈증이 나지 않으 니 發汗시켜야 한다. 正水는 그 脈象이 沈遲하고 밖으로는 나타나는 증상은 반드시 喘息을 겸한다. 石水는 그 脈象이 沈하고 밖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腹部가 脹滿하니 천식은 없다. 黃汗은 그 脈象이 沈遲하고 몸에 열이 나며 가슴이 그득하고 四肢와 머리, 얼굴에 浮腫이 발생하여 오랫동안 낫지 않으면 반드시 癰膿이 발생한다.

【考察】

風水의 증상에 脈이 浮하고, 骨節이 아프고 惡風하는 것은 太陽中風의 脈證이지만 특히 水邪가 내부에 있기 때문에 風水라 한다.14)

皮水는 肺가 水液을 調節하는 機能과 脾가 飲食을 운화하는 기능이 비정상적이어서 水濕이 피부에 머물러 四肢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脈이 浮하고 전신에 부종이 생기며 피부를 누르면 자국이 나며 惡風이 발생하지 않는 기전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水邪가 피부에 침범한 상태에서 風邪가 피부와 水邪 사이로 침입하여 서로 뒤섞이나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說과,15) 尤는 風邪를 겸하지 않았기 때문에 惡風하지 않는다는 說이 있다.16)

成百萬: 脈經의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研究, 圓光大學教 大學院, 益山, 1999, p.8

그러나 뒤의 '발한해야 한다는 것'으로 미루어보건대 이는 外感表 證을 치료하는 방법이므로17 風邪를 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갈증이 나지 않는 것은 水濕으로 인한 병이기 때문이다.18)

正水는 水氣가 넘쳐 陽明으로 직접 침범하기 때문에 붙여진이름이다.19 이는 腎陽이 不足하여 津液을 運化하기 어려워서 水濕이 내부에 머물러서 腎臟의 水氣가 盛하기 때문에 발생하며,20 沈脈이 나타나는 것은 水氣는 내려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고, 脈이 遅한 것은 陰寒이 내부에 쌓여 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며,21) 喘息을 발생하는 것은 水氣가 土를 승하여 水氣가 거슬러올라가면 衛氣도 거슬러 올라가 위를 막기 때문이다.22)

石水에 대해서 『素問・陰陽別論』에서 "多陰少陽 曰石水"라 하였으니, 石水는 腎水로서 腎經에 水氣가 많고 腎陽이 虛하여 膀胱이 氣化作用을 하지 못하므로 浮腫이 발생하고, 膀胱의 部位인 少腹部가 팽만하고 肺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喘息이 없다.23)

黄汗은 水邪가 내부에 있기 때문에 沈遲한 脈이 나오고 水 邪가 운행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濕熱로 바뀌고 그 濕熱로 인하 여 發熱과 胸滿이 발생하고 四肢와 머리, 얼굴에 浮腫이 발생한다. 이것이 낫지 않고 오래되면 濕熱이 癰腫으로 변하게 된다.44)

本 條文에 근거하여 다섯 가지 水氣病을 비교해보면 風水와 皮水는 外感表證이므로 浮脈이 나타나는데 風水는 惡風하고 頭 面浮腫이 발생하며 皮水는 惡風하지 않고 온 몸에 浮腫이 발생 하는 특징이 있다.25)26) 正水와 石水는 모두 裏證으로서 沈脈이 나타나는데 正水는 上部의 病이므로 喘息이 있고 石水는 下部의 病이므로 喘息이 없으며 少腹部位가 팽만하다.27)28)

第 2條. 風水와 黃汗의 鑑別

【原文】

脈浮而洪(1)하면 浮則爲風이요 洪則爲氣(2)니 風氣相搏하야 風强(3)則爲隱疹(4)하야 身體爲癢하니 癢(5)則泄風1)하야 久爲痂癩(6)요 氣强(7)則爲水하야 難以俛仰2)(8)이요 風氣相擊하야 身體洪(9)腫하면 汗出乃愈라 惡風則虛니 此爲風水요 不惡風者로 小便通利하고 上焦3)有寒하야 其口多涎하면 此爲黃汗이라

【校勘】

1) 癢則泄風:『醫統』,『魏本』,『金鑑・卷二十一』에는"癢爲泄風"으로,『尤本』에는"癢者爲泄風"으로 되어 있다.

¹¹⁾ 陳紀藩: 跗腫卽 指皮膚浮腫이라

¹²⁾ 成百萬: 脈經의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研究, 圓光大學教 大學院, 益山, 1999, p.32

¹³⁾ 成百萬: 脈經의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研究, 圓光大學教 大學院, 益 山. 1999. p.67

¹⁴⁾ 魏: 浮者는 風邪感于外 而水氣積于內也라 故로 外證이 骨節疼痛 惡風 하니 全是太陽中風之脈證이요 特有水邪在內 故로 名之曰風水라

¹⁵⁾ 魏: 不惡風者는 有水邪在皮膚하고 風客于皮水之間하ら 與之相混하ら 不復內侵也라

¹⁶⁾ 尤: 不兼風 故로 不惡風也라

¹⁷⁾ 素問・陰陽應象大論: 其在表者는 汗而發之라

¹⁸⁾ 吳謙: 因水濕 故로 不渴이라

¹⁹⁾ 李定: 靈樞云 胃病에 大腹水腫은 今水氣横逆하야 直犯陽明하야 為正經 受病 故로 日正水라

²⁰⁾ 吳謙: 正水는 腎臟之水自盛也라

²¹⁾ 李彣: 脈沈者는 水性下流오 遅者는 陰寒內積也라

²²⁾ 李彣: 自喘者는 水來乘土하야 水氣逆行則 衛氣亦逆而上擁이라

²³⁾ 素問研究集成 2001 卷一 p.262:張 石水는 腎水也요 腎者는 胃之關이 니 關門不利 故로 聚水而從其類也라

²⁴⁾ 李芝: 汗如柏汁之黃 濕熱之氣發泄于外則 爲發熱하고 鬱蒸于內則 爲胸滿也라 四肢頭面腫者는 水氣無所不漬이요 久致癰膿者는 濕熱醞醸已深하い 腐化而外漬也라

²⁵⁾ 沈明宗: 風水與皮水相類니 屬表하고 … 但風水惡風하고 皮水不惡風하고 …

²⁶⁾ 吳謙: 風水는 得之內有水氣하고 外感風邪라 風則從上腫 故로 面浮腫 …皮水는 得之內有水氣하고 皮水濕邪하니 濕則從下腫 故로 附浮腫 …

²⁷⁾ 沈明宗: 正水與石水相類니 屬裏라 … 正水自喘하고 石水不喘爲導耳라

²⁸⁾ 吳謙: 正水는 水之在上病也요 石水는 水之在下病也라

- 2) 難以俛仰: 『金匱玉函經二注・卷十四』에는 "類以俯仰"으로 되어 있다.
- 3) 上焦: 『脈經・卷第八』에는 "上膲"로 되어 있다.

【註釋】

- (1) 洪脈: 매우 大하고 形狀이 파도가 세차게 위로 치솟는 것 같아 脈氣가 오는 것은 세차고 힘이 있으나 脈氣가 가는 것은 弱 한 脈狀이다.29)
 - (2) 氣: 水氣를 말한다.30)
 - (3) 風强: 風邪가 偏盛한 것을 의미한다.
- (4) 廳疹(은진): 두드러기. 피부가 갑자기 가려우며 편평하게 약간씩 도드라져 올라오는 병증
 - (5) 痒(양): 소양증. 가려운증상
 - (6) 痲癩(가라): 化膿이나 結痂같은 종류의 피부병
 - (7) 氣强: 水氣가 偏盛한 것을 의미한다.
 - (8) 俛仰(부앙): 허리나 고개를 구부렸다 펴는 것.
 - (9) 洪 : 大也, 클 홍

【國譯】

脈象이 浮하면서 洪하면, 浮한 것은 風邪, 洪한 것은 水氣니, 風邪와 水氣가 서로 뒤섞여 風邪가 强하면 隱疹이 되어서 몸이 가려우니, 가려우면 風邪가 세어나와 오래되면 痂癩가 되고, 水 氣가 强하면 水腫이 되어서 몸을 구부리고 펴기 어렵다. 風邪와 水氣가 뒤섞여 온몸이 매우 부으면 땀을 나게 해야 낫는다. 惡風 하면 表陽이 虚한 것이니 이는 風水이고 惡風하지 않으며 小便 을 잘 보고 上焦에 寒邪가 있어 입에 침이 많이 생기면 이는 黃 汗이다.

【考察】

浮脈은 風邪가 침범하기 때문에 나타나며 "洪則爲氣"의 氣는 "水氣"로서 濕邪이다.31) 風邪와 水氣가 뒤섞여 있는데 만약風邪가 강하면 水氣가 風邪를 따라 피부에 침범하여32) 水濕의 邪氣가 皮膚에 성하게 되면 廳疹이 발생하여 가렵게 되고33) 가려우면風邪가 皮膚로 세어나와 피부를 마르게 하여 부스럼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이 오래 되면 痂賴, 疥癬, 癘癩등이 발생된다.34) 만약 水氣가 强盛할 경우에는 風邪가 水氣를 따라서 水濕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浮腫, 喘滿, 難而仰俯35) 등의 증상이 발생된다.

第 3條. 風水의 脈證

【原文】

寸口脈(1)이 沈(2)滑(3)者가 中(4)有水氣하야 面目腫大有熱하면 名曰風水라 其人之目裹上1)이 微擁(5)하야 如蠶2)(6)新臥起狀하고 其頸脈(7)이 動하고 時時(8)蒸3)하고 按其手足上에 陷而不起者가 風水라

【校勘】

- 1) 其人之目裹上: 『醫統』, 『脈經・卷第八』, 『金鑑・卷二十一』에는 "視人之目裹上"으로, 『金匱玉函經二注・卷十四』, 『魏本』, 『尤本』에는 "視人之目窠上"으로 되어 있다.
- 2) 微擁如蠶 新臥起狀: 『脈經・卷第八』에는 "微擁如新臥起 狀"으로, 『尤本』에는 "微腫如蚕新臥起狀"으로, 『金鑑・卷二 十一』에는 "微擁如蠶新臥起狀"으로 되어 있다.
- 3) 時時欬: 『金匱玉函經二注・卷十四』, 『魏本』, 『尤本』 에는 "時時咳"로 되어 있다.

【註釋】

- (1) 寸口脈: 寸關尺의 寸口脈을 가리킨다.
- (2) 沈(침): 沈脈. 沈脈은 손가락을 가볍게 누르면 脈이 感應되지 않고, 무겁게 눌러야 잡히는 脈狀이다.36)
- (3) 滑(활): 滑脈은 꿰어 놓은 구슬을 가볍게 잡고 빠르게 뽑아 낼 때처럼 동글동글하고 매끄럽게 손가락에 感應되는 脈狀이다.37
 - (4) 中:內也. 내부를 말한다.
- (5) 目裹上微擁: 眼胞浮腫을 뜻한다.(* 裹(과): 包也 쌀과 * 擁(옹): 腫也 부을 옹)³⁸⁾
 - (6) 蚕: 蠶(누에 잠)의 속자
 - (7) 頸脈: 人迎脈 頸動脈을 가리킨다.39)
 - (8) 時時: 때때로

【國譯】

寸口脈이 沈滑한 것이 내부에 水氣가 있어서 얼굴과 눈이 붓고 熱이 나면 이를 風水라 한다. 환자의 눈꺼풀이 부워서 마치 방금 잠에서 깨어난 누에같이 약간 붓고, 頸動脈이 躁動하고 항 상 咳嗽를 하고, 손발 등을 눌렀을 때 들어가 나오지 않는 것이 風水이다

第 4條. 水氣病의 辨證과 治療原則

【原文】

太陽病에 脈浮而緊(1)하면 法當骨節疼痛이어늘 反不疼1)하고 身體反重而酸2)(2)하며 其人이 不渴하면 汗出則愈니 此爲風水 요 惡寒者는 此爲極虚니 發汗得之라 渴而不惡寒者는 此爲皮水니身腫而冷하야 狀如周痹(3)라 胸中窒3)(4)하야 不能食하고 反聚痛하고 暮(5)燥不得眠4)하면 此爲黃汗이니 痛在骨節이요 欬(6)而喘하고 不渴者는 此爲脾脹5)(7)이니 其狀如腫6)이요 發汗卽愈라 然이나 諸病(8)此者가 渴而下利하고 小便數者는 皆不可發汗이라

- 1) 反不疼: 『脈經・卷第八』에는 "而反不疼"으로 되어 있다.
- 2) 身體反重而酸: 『尤本』에는 "身體反重而痠"으로 되어 있다.
- 3) 胸中窒: 『金鑑・卷二十一』에는 "胸中塞"으로 되어 있다.
- 4) 暮燥不得眠: 『脈經・卷第八』에는 "暮燥不眠"으로 되어 있다.
- 5) 脾脹: 『金匱玉函經二注・卷十四』 와 『尤本』 에는 "肺脹"

²⁹⁾ 成百萬: 脈經의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研究, 圓光大學教 大學院, 益山, 1999, p.11

³⁰⁾ 魏本: 氣者는 水氣라

³¹⁾ 魏本: 如脈浮而洪하니 浮則爲風하고 洪則爲氣라 氣者는 水氣卽 濕邪也라

³²⁾ 陳紀藩: 風强則 氣從風而侵淫肌膚而 爲纏疹이라

³³⁾ 魏本: 爲濕所鬱 故로 爲廳疹이라 身體爲癢이라

³⁴⁾ 吳謙: 名曰泄風即 今之風燥瘡是也 故로 日久不愈則 成痂癩 痂癩 疥癬 瘓癩之類是也라

³⁵⁾ 陳紀藩: 風從氣而鼓湧水液而爲水하고 水盛則 腫脹喘滿하고 難而仰俯라

³⁶⁾ 成百萬: 脈經의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研究, 圓光大學教 大學院, 益山, 1999, p.32.

³⁷⁾ 成百萬: 脈經의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研究, 圓光大學教 大學院, 益山, 1999, p.17

³⁸⁾ 陳紀藩: 『靈樞 · 水脹』"目麥上微腫"之意. 是指眼胞微腫 "目麥" 指眼 胞, 即眼瞼; 擁: 腫之意.

³⁹⁾ 陳紀藩: 指人迎脈 頸動脈라 王冰曰 頸脈은 謂耳下結喉傍人迎脈也라

으로 되어 있다. 『靈樞·脹論』에 "肺脹者 虛滿而喘欬 ··· 脾脹者 善蟻 四肢煩悗體重 不能勝衣 臥不安"이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原文의 症狀이 肺脹에 가까우므로 肺脹으로 國譯한다. 6) 其狀如腫: 『脈經·卷第八』에는 "其形如腫"으로 되어 있다.

【註釋】

- (1) 緊脈:緊脈의 體狀은 脈의 넓이, 길이, 浮沈에 관계없이 줄을 잡아당기거나 새끼줄을 돌리는 것처럼 손가락을 치는 것이다.40)
 - (2) 酸(산): 酸疼, 시큰시큰 아픈 것
- (3) 周痺(주비): 痺證의 하나. 氣가 虛한데다 風寒濕의 邪氣가血脈과 肌肉에 침범해서 생긴다. 온몸이 아프고 무거우며 감각이 둔해지고 목과 잔등이 켕긴다. 風痺, 痺라고도 한다.41)

(4) 窒 : 塞也, 막힐 질

(5) 暮: 晩也, 해가 저물 모

(6) 欬 : 咳也, 기침할 해

(7) 脾脹: 脾에 찬기운이 몰려서 생긴다. 구역질을 자주하고 팔다리가 달아오르면서 쓰기 불편하며 몸이 무겁고 잠을 편안히 자지 못하는 病症.

(8) 病:水氣病

【國譯】

太陽病에 脈이 浮하면서 緊하면 응당 骨節이 아파야 하나도리어 아프지 않고 몸은 도리어 무거우면서 시큰거리며 그 환자가 갈증이 없으면 땀을 내면 나으니 이것은 風水이고, 만약 惡寒하면 陽氣가 몹시 虛해진 것이니 發汗이 지나쳐서 생긴 것이다. 갈증이 나면서 惡寒하지 않는 것은 皮水이니 몸이 붓고 차가워서 周痹와 비슷하다. 胸中이 막히고 음식을 먹지 못하며,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통증이 관절주위로 모이고 밤이 되면 煩躁證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면 이는 黃汗이니, 骨節部位가 아프다. 咳嗽와 喘息이 발생하고 갈증이 없으면 肺脹이니 浮腫과 비슷하며 땀을 내면 낫는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병을 앓는 환자가 갈증이 나면서 설사를 하고 小便을 자주 보는 경우엔 땀을 내서는 안된다.

【考察】

太陽病에 寒邪가 있으면 脈緊 骨疼, 濕邪가 있으면 脈濡 身重, 風邪가 있으면 脈浮 體痠의 증상이 나타나므로 本 條文의 骨節痠痛하고 身體反重而酸한 것은 太陽傷寒이 아니라 風水가 외부에서 침범한 것이다. 風邪와 水氣가 表部에만 있고 속안으로침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渴證이 없다. 風邪로 인한 병과 水氣가表部에 있는 경우 發汗을 시켜야 낫는다. 그러나 水氣가 盛하고實證인 경우에 發汗을 시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發汗시킬수 없다. 발한을 지나치게 하면 表陽이 虚하게 되어 惡寒의 症狀이 나타나게 된다.42)

皮水는 '渴而不惡寒者'라고 하였다. 皮水는 風邪가 아닌 水

氣로 인한 것으로43) 中焦에 濕이 막히고 肺가 水濕을 輸布하지 못하여 津液을 灌漑하지 못하므로 갈증이 생기며44) 病邪가 表에 있지 않으므로 惡寒하지 않는다.45)46,47) 皮水는 몸이 붓고 찬 증 상에 있어 周痹와 비슷하지만 周痺는 寒濕邪가 陽氣를 막아서 생긴 것이고 皮水는 水氣가 皮膚에 침범하여 발생한 것으로 차 이가 있다.48)

黃汗의 症狀에 "胸中窒"과 "不能食"은 寒邪가 外表에 침습하여 氣가 中焦에서 막혀49) 水氣가 心下에 머무르기 때문이며50) 음식을 먹으면 막혔던 것이 더욱 막혀 胸部가 아프게 되고 저녁때 寒이 偏盛하여 偏盛된 寒이 더욱 鬱結되어 熱로 바뀌기 때문에 煩躁로 잠을 자지 못한다.51) 關節痛은 寒濕이 外表에서 떠돌면 반드시 關節로 흘러 들어가므로 발생한다.52)

本 條文에 언급된 水氣病의 治法은 發汗이나 갈증이 있고 설사를 하며 小便數한 경우에는 發汗法을 쓸수 없으니 이는 津 液이 이미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發汗해서는 안된다.53)

第 5條. 越婢加朮湯證

【原文】

裏水(1)者1)는 一身面目이 黄腫2)하고 其脈이 沈하고 小便不利 故로 令病水니 假如小便自利면 此는 亡津液 故로 令渴也라越婢加朮湯主之(2)라 方見下3)

【校勘】

- 1) 裏水者: 『脈經・卷第八』에는 "師曰 裏水者"로 되어 있다.
- 2) 黃腫: 『脈經·卷第八』에는 "洪腫"으로 되어 있다. 각 註家 들도 "黃腫"은 "洪腫"의 잘못으로 본 것이라 하였으므로 "洪腫"으로 본다.
- 3) 方見下: 『醫統』, 『金匱玉函經二注・卷十四』, 『魏本』, 『尤本』에는 "方見中風"으로 되어 있고, 『金鑑・卷二十一』에 는 없다.

【註釋】

- (1) 裏水:皮水, 온몸과 얼굴, 눈이 모두 붓고 오줌을 잘 누지 못하는 병증. 피부의 안쪽에 있으므로 裏水라고 하였다.54)
- (2) 越婢加朮湯: 麻黄六兩 石膏半斤 甘草二兩 生薑二兩 大棗 十五枚 白朮六兩 이상 여섯 가지 약재를 水 六升으로 먼저 麻黄 을 다려서 위에 떠있는 거품을 제거하고 나머지 약을 넣고 三升 이 되도록 달여서 따뜻하게 세 번에 나누어 복용한다.55)

⁴⁰⁾ 成百萬: 脈經의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研究, 圓光大學教 大學院, 益山, 1999, p.29

⁴¹⁾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재편집東醫學事典, 까치, 서울, 1994 p.943

⁴²⁾ 尤恰: 太陽有寒則脈緊骨疼이。 有濕則脈濡身重이。 有風則脈浮體痠하 니 此明辨也라 今得傷寒脈而骨節不痠하고 身體反重而痠하면 即非傷寒 이。 乃風水外勝也라 風水在表而非裏 故豆 不渴이라 風固當汗이。 水 在表者도 亦宜汗 故豆 曰汗出卽愈라 然이나 必氣盛而實者는 汗之乃愈 라 不然 則其表益虛하야 風水雖解나 而惡寒轉增矣라 故豆 曰惡寒者는 此為極虚니 發汗得之라

⁴³⁾ 尤怡: 若其渴而不惡寒者는 則非病風而獨病水斗

⁴⁴⁾ 李彣: 皮水則 渴이요 以中焦濕滯하야 肺氣不脹하면 津液不能灌漑也라

⁴⁵⁾ 尤怡: 不在皮外而 在皮中이라

⁴⁶⁾ 李彣: 表氣未虛 故로 不惡寒이라

⁴⁷⁾ 尤怡: 視風水爲較深矣斗

⁴⁸⁾ 尤怡: 其證身腫而冷하니 狀如周痹이나 周痺로 為寒濕痹其陽이요 皮水 는 爲水氣淫於膚也라

⁴⁹⁾ 尤怡: 胸中窒不能食者는 寒襲於外 而氣窒於中也라

⁵⁰⁾ 李芝: 胸窒 不食 反聚痛者는 水停心下하고 積滯不散也라

⁵¹⁾ 尤怡: 反聚痛 暮躁不得眠者는 熱爲寒鬱 而寒甚於暮也라

⁵²⁾ 尤怡: 寒濕外淫하면 必流關節이라

⁵³⁾ 吳謙: 渴而下利 小便數者는 津液已奪이니 皆不可發汗이라

⁵⁴⁾ 唐宗海: 居皮之內 故로 名曰裏라

⁵⁵⁾ 金匱要略 中風歷節病脈證幷治第五: 麻黄六兩 石膏半斤 甘草二兩 生薑 二兩 大棗十五枚 白朮六兩 右六味를 以水六升하야 先煮麻黄去上沫하고 納諸藥을 煮取三升호대 分溫三服이라

【國譯】

裏水는 전신과 얼굴, 눈이 심하게 붓고, 그 脈이 沈하고 小便을 잘 보지 못하므로 水氣病이 발생하니 만약 小便이 잘 나오면이는 津液이 없어졌기 때문에 갈증이 난다. 越婢加朮湯으로 主治한다. 처방은 아래에 있다.

【考察】

裏水는 皮膚의 안에 水氣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56)이며 이로 인해 전신과 얼굴과 눈이 심하게 붓고 水氣가 裏部에 있으므로 脈沈하며 水道가 원활하지 않으므로 小便이 잘 나가지 않는다.57

黃汗은 몸이 黃色이고 땀도 黃色으로 나는 것이나 裏水는 몸은 黃色이지만 누런 땀은 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水氣가 裏 部에 있기 때문이다.58)

黃腫은 "洪腫"으로 誤字로서 "아주 심하게 부은 것"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59)

本 方은 麻黃 石膏 生薑 甘草 白朮 大棗 로 구성되어 있다. 麻黄은 피부속의 水氣를 發汗시켜 전신의 浮腫을 제거하고60) 石膏는 열을 식혀주므로 熱邪가 안에서 막혀 소변이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하며61) 生薑은 麻黃과 함께 發散解表, 祛除水氣하여 水氣를 없애고 甘草는 麻黃과 함께 써서 表部의 氣를 풀어주어 소변을 나오게 함으로서 水氣를 제거한다. 白朮 또한 表裏의 水氣를 除去하니 越婢加朮湯은 發汗하고 鬱熱을 제거하여 利小便하는 효능을 갖고 있으므로 小便不利의 證에 사용하고, 小便自利의 경우에는 津液이 枯渴되므로 越婢加朮湯을 쓸 수 없다. 따라서沈은 "越婢加朮湯主之"를 "故令病水" 뒤로 옮겨야 한다고62) 하였으니 이 말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문의 "方見下"는 『中風歷節病脈證幷治第五』를 가리킨다.

第 6條. 趺陽脈으로 疝瘕와 水氣의 診察

【原文】

趺陽脈(1)은 當伏(2)이어늘 今反緊하면 本自有寒하야 疝瘦 (3)腹中痛1)이니 醫反下之면 下之即胸滿短氣(4)라 趺陽脈은 當伏 이어늘 今反數하면 本自有熱하야 消穀(5)小便數이나 今反不利면 此欲作水라

【校勘】

1) 腹中痛: 『醫統』에는 "腹中疼"으로 되어 있다.

【註釋】

- (1) 趺陽脈(부양맥): 衝陽脈이라고도 함. 三部九候의 下部人으로 足太陰에 속한다.
- (2) 伏脈(복맥): 처음 가볍게 눌렀을 때 나타나지 않고, 다음으로 中部에서 찾아도 나타나지 않으며, 다시 매우 무겁게 눌러도 그 形象이 없고, 손가락으로 筋을 밖으로 밀어내고 診脈하여야
- 56) 唐宗海: 居皮之內 故로 名曰裏라
- 57) 李奘: 水氣泛溢 故로 一身面目黃腫이요 水在裏 故로 脈沈이요 小便不 利則水道愈澀 故로 主越婢加朮湯이라
- 58) 陳紀藩: 其分別處는 在於黃이니 若黃而汗出亦黃 則爲黃汗이요 身黃而 無汗出則爲裏水니 水在裏라
- 59) 陳紀藩: 洪腫은 卽腫勢很盛이라
- 60) 李ジ: 內有麻黄發汗하고 以一身面黄黄腫 故로 汗以散之라
- 61) 李彣: 小便不利則 熱閉于內이니 石膏는 清凉撤熱하고 亦能解肌出汗也라
- 62) 沈明宗: 越婢加朮湯은 當在故令病水之下라

나타난다.63)

- (3) 疝瘕: 하복부가 열이 나고 아프며 요도에서 백색의 점액이 홀러나오는 병증
 - (4) 短氣: 숨결이 빠르면서 이어지지 못하고 숨이 찬 병증
- (5) 消穀: 消穀善飢, 입맛이 지나치게 좋고 먹은 것이 잘 소화되어 이내 배고픈 감을 느끼는 증상

【國譯】

跌陽脈은 당연히 伏脈이 나타나야 하나 도리어 緊하면 본래 寒邪가 있어서 疝瘕가 발생하여 腹中痛이 있으니 의사가 實證으로 잘못 알고서 下法을 쓰면 胸滿과 短氣가 발생한다.

趺陽脈은 당연히 伏脈이어야 하나 도리어 數脈이 나타나면 본래부터 熱邪가 있어 消穀善飢하고 小便을 자주 본다.이제 도리 어 小便을 잘 보지 못하면 이는 水氣病이 발생하려는 것이다.

【考察】

跌陽脈이 비록 足陽明胃脈에 속하여 陽經이지만 寸口와 비교하면 발(足部)인 陰部에서 나오므로 당연히 伏脈으로 나타나야한다.여) 만약 緊脈으로 나타나면 腹中에 寒邪가 있어서 疝瘕의病證 때문에 腹痛이 나타나지만 이를 의사가 實證의 腹痛으로 오인하여 下法을 사용하면 胸中의 宗氣가 약해지므로 가슴이 답답하고 短氣가 발생한다.65) 또한 趺陽脈이 數한 것은 胃中에 熱이 있는 것이므로 소화가 잘되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지만 도리어 소변을 잘 보지 못하면 水液이 날로 쌓이게 되므로 얼마 있어 水腫이 발생한다.66)

第 7條. 寸口와 趺陽脈으로 水病의 診察

【原文】

寸口脈이 浮而遲하면 浮脈則熱이요 遲脈則潛1)(1)이니 熱潛相搏2)(2)을 名曰沈(2)이라 趺陽脈이 浮而數3)하면 浮脈卽熱이요 數脈(3)卽止(4)니 熱止相搏2)을 名曰伏(5)이라 沈伏相搏2)을 名曰 水니 沈則絡脈虛4)요 伏則小便難이니 虛難相搏2)하야 水走皮膚 卽爲水矣라

【校勘】

- 1) 遲脈卽潛: 『尤本』에는 "遲脈則潛"으로 되어 있다.
- 2) 相搏: 『脈經·卷第八』, 『論注』에는 "相摶"으로 되어 있다.
- 3) 趺陽脈浮而數: 『金匱玉函經二注・卷十四』에는"趺陽浮脈而數"으로 되어 있다.
- 4) 沈則脈絡虚:『魏本』,『金鑑・卷二十一』에는"沈則絡脈虚"로 되어 있다.

【註釋】

- (1) 潛: 涵沈也. 잠길 잠
- (2) 沈(침): 熱邪가 있으면서 原氣가 下部에서 잠복된 것 67)
- (3) 數脈(삭맥): 正常的인 成人의 경우 醫師의 1呼吸에 患者의

⁶³⁾ 成百萬: 脈經의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研究, 圓光大學教 大學院, 益山, 1999, p.34

⁶⁴⁾ 尤怡: 趺陽은 雖系胃脈而出于陰部 故로 其脈當伏이라

⁶⁵⁾ 徐彬: 醫反下之則 元氣受傷하고 水病未除하ぐ 寒邪相乗하ぐ 胸中之宗 氣弱하고 不能御之 爲胸滿하니 爲短氣矣라

⁶⁶⁾ 尤怡: 其反數者는 以其胃中有熱故也라 熱則當消穀而小便數이니 今反 不利則 水液日積 故로 欲作水라

⁶⁷⁾ 徐彬: 浮主熱하고 內又見遲니 遲者는 元氣潛于下也라

맥이 6回 이상 搏動하는 脈이다.68)

- (4) 止(지): 侵犯한 邪氣가 熱로 변하여 眞氣의 運行을 막은 것 69)
- (5) 伏(복): 위로 올라가야 할 衛氣가 가라앉아서 올라가지 못 하는 것 ⁷⁰⁾

【國譯】

寸口脈이 浮하면서 遲하면 浮脈은 熱邪이고 遲脈은 元氣가 가라앉은 것이니 熱邪로 인하여 元氣가 가라앉은 것을 "沈"이라한다. 趺陽脈이 浮하면서 數하면 浮脈은 熱邪이고 數脈은 眞氣가熱에 막힌 것이니 熱邪로 眞氣가 멈춘 것을 "伏"이라고 한다. 沈과 伏의 상태가 서로 결합되면 水氣病이 발생하니, "沈"은 絡脈이 虚한 것이고, "伏"은 小便을 보기 어려운 것이니 絡脈이 虚하고 小便을 보기 어려워서 水氣가 피부로 走行하면 水病이 된다.

【考察】

寸口脈의 陽氣가 下降하여 潛伏되면 絡脈이 虛하게 되고 趺陽脈의 眞氣가 멈추어 가라앉아서 氣가 有餘하면 바로 火가 되고 火熱이 심하면 小便을 보기 어려워서가, 위로는 水氣를 운행할 수 없고 아래로는 水氣를 排出시킬 수 없어 이처럼 水氣가 妄行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72)

第 8條. 寸口脈과 少陰脈으로 水氣의 診察

【原文】

寸口脈이 弦(1)而緊(2)하면 弦則衛氣不行卽惡寒1)하고 水不 沾流(3)하야 走於腸間이요 少陰脈(4)이 緊而沈하면 緊則爲痛하고 沈則爲水니 小便卽難이라

【校勘】

1) 即惡寒: 『脈經・卷第八』에는"衛氣不行則惡寒"으로, 『金匱玉函經二注・卷十四』에는 "緊即惡寒"으로 되어 있다.

【註釋】

- (1) 弦脈(현맥): 弦脈은 그 體狀이 바르고 곧으면서 長하여 絃 樂器의 줄을 누르는 것 같은 것이다.73)
- (2) 緊脈(긴맥): 緊脈의 體狀은 脈의 넓이, 길이, 浮沈에 관계없이 줄을 잡아당기거나 새끼줄을 돌리는 것처럼 손가락을 치는 것이다.74)
- (3) 水不沾流: '沾流'는 인체의 정상적인 水液代謝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津液이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는 것을 뜻한다.75) (* 沾: 濡也, 젖을 첨)
- (4) 少陰脈(소음맥): 足少陰腎經의 太谿穴 부위에서 뛰는 脈. 徐彬은 尺脈으로 보았다.76)
- 68) 成百萬: 脈經의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研究, 圓光大學教 大學院, 益山, 1999, p.19
- 69) 徐彬: 客氣爲熱而眞氣爲止라
- 70) 徐彬: 熱止相搏名曰伏이라 言其宜上出之衛氣가 伏而不能升也라
- 71) 徐彬: 寸口陽氣沈而在下則 絡脈虚라小便者는 水道之所以出也라 跗陽 眞氣止而在下하야 氣有餘면 卽是火요 火熱甚則小便難이라
- 72) 徐彬: 又是上不能運其水하고 下不能出其水하니 又焉能禁水之鬍行而亂 走耶라
- 73) 成百萬: 脈經의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研究, 圓光大學教 大學院, 益 山. 1999. p.26
- 74) 成百萬: 脈經의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研究, 圓光大學教 大學院, 益山, 1999, p29
- 75) 陳紀藩: 水不沾流는 津液不能循常道運行이라
- 76) 徐彬: 少陰者는 尺脈也라

【國譯】

寸口脈이 弦하면서 緊하면 弦脈은 衛氣가 운행하지 않고, 緊하면 惡寒하며, 水氣가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고 腸間으로 흘러간다. 少陰脈이 緊하면서 沈하면 緊脈은 통증이 되고 沈脈은 水氣가 되니 소변을 보기 어렵다.

【考察】

寸口脈이 弦한 것은 水氣이고 緊한 것은 寒邪이니 水氣와 寒邪가 肺에 있으면 營氣와 衛氣가 分肉을 따뜻하게 길러주지 않아서 惡寒하게 되고, 肺가 水道를 관리, 조절하지 못하면 水氣 가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고 大腸으로 흘러들어 水腫이 된다. 少陰脈은 水를 主宰하고 膀胱과 表裏의 관계이니 少陰脈이 緊한 것은 陰寒이 盛하여 腸胃에 뭉치면 痛症이 발생하고, 沈하면 水 分代謝機能이 원활하지 않아 水氣가 넘치게 되어 小便을 보기 어렵다.77)

이상과 같이 肺가 水道를 조절하지 못하거나, 腎이 水氣를 조절하지 못하여 浮腫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素問·水熱穴論』의 "黃帝께서 물으시기를, 少陰은 어찌하여 腎을 主宰하며 腎은 어찌하여 水를 主宰합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腎은 至陰이니 至陰은 水氣가 旺盛한 것입니다. 肺는 太陰이고 少陰은 冬脈입니다. 그러므로 水病의 本은 腎에 있고 末은 肺에 있으니 모두 水氣가 모인 것입니다."78)라고 한 이론을 더욱 자세히 밝힌 것이라 사료된다.

第 9條. 水氣病의 脈證과 預後

【原文】

脈得諸沈1)은 當責(1)有水니 身體腫重이요 水病에 脈出(2)者 는 死라

【校勘】

1) 脈得諸沈: 『脈經・卷第八』에는 "師曰 脈得諸沈者"로, 『魏本』에는 "脈得諸沈者"로 되어 있다.

【註釋】

- (1) 責 : 任也, 책임 책
- (2) 脈出: 가라앉지 않고 반대로 위로 떠있어 밖으로 흩어지는 것으로 旺盛하지만 그 뿌리가 없는 脈象??)

【國譯】

脈에 모든 沈脈의 종류가 나타나면 그 책임이 水氣에 있는 것으니, 신체가 부으면서 무거워진다. 水氣病에 脈이 가라앉지 않고 반대로 위로 뜨고 밖으로 흩어지며 旺盛하게 나타나지만 그 뿌리가 없는 脈象이 나타나면 죽는다.

【考察】

水氣는 陰邪이고 陰邪가 盛하면 沈脈이 나타나며 또한 水氣가 皮膚 속으로 운행하여 營衛의 운행이 막혀도 沈脈이 나타난다.80) 만약 水氣病에 脈出의 현상이 나타나면 正氣가 새어나가서

⁷⁷⁾ 喩嘉言: 弦爲水요 緊爲寒이니 水寒在肺則 營衛不溫分肉而惡寒하고 肺 之治節不行하면 不能通調水道 故로 水不活流而但走大腸之也라

⁷⁸⁾ 水熱穴論: 黄帝問 日少陰은 何以主腎하며 腎은 何以主水오 歧伯이 對 日腎者는 至陰也니 至陰者는 盛水也요 肺者는 太陰也요 少陰者는 冬脈 也라 故足 其本在腎하고 其末在肺이나 皆積水也니이다.

⁷⁹⁾ 李本: 脈象不沈反浮散於外하고 盛大無根이라

⁸⁰⁾ 尤怡: 水爲陰하고 陰盛 故로 令脈沈이라 又水行皮膚하면 營衛被遏하고

없어진 것이어서81) 病氣만 남게 되므로 죽는다.82)

脈出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水氣病이 나아가는 중에 寒邪가 점차 흩어지고 水邪가 점차 消滅되어 脈이 천천히 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陽氣가 回生하여 旺盛해져서 살아나게 되는 脈象을 의미하고, 두 번째로는 근본이 없이 위로 흩어져 內部에서는 陰寒이 旺盛하고 陽氣는 밖으로 흩어져서 陰陽이 서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로 豫後가 대부분 不良하여 죽음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데83), 本 條文에서는 두 번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그 의미상 옳다고 사료된다.

第 10條. 下法을 사용할 수 있는 水氣病

【原文】

夫水病人은 目下에 有臥蠶面目鮮澤하고 脈伏1)하고 其人이 消渴(1)하며 病水腹大하고 小便不利(2)하고 其脈沈絶(3)者는 有 水니 可下之라

【校勘】

1) 脈伏: 『醫統』에는 "脈浮"로 되어 있다.

【註釋】

- (1) 消渴 : 물을 많이 마시고 음식을 많이 먹으나 몸은 여위고 오줌양이 많아지는 병증.
 - (2) 小便不利: 小便量이 적어진 것84)
- (3) 脈沈絶: 매우 沈한 것을 形容한 것이고 참으로 脈이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85)

【國譯】

水氣病을 앓는 사람은 눈 아래가 부워 누에가 누워있는 듯 하고 얼굴과 눈이 밝으면서 윤택하며 脈이 伏하고 입이 말라 물 을 많이 마신다. 水氣病에 腹部가 脹大하고 小便을 잘 보지 못하 고 脈이 매우 沈하면 水氣가 있는 것이니 下法을 쓸 수 있다.

【考察】

水氣는 皮膚를 윤택하게 하기도 하지만 榮衛의 運行을 막기도 하므로 얼굴과 눈이 부으면서 윤택하고 또한 伏脈이 나타나며86), 水穀이 津液으로 변화되지 않아 입이 말라 물을 많이 마시게 된다. 水氣病에 입이 말라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腹部가 脹大하고, 水氣가 안에서 쌓이게 되므로 小便을 잘 보지 못하며 脈도 매우 沈하게 나타난다.87) 이러한 경우는 내부에 水氣가 쌓인 것이므로 반드시 그 水氣를 寫하고 脈을 疏通시켜야 한다.88) 본조문에서 처방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十棗湯89, 己椒藶黃丸90,

亦令脈沈이라

- 81) 成無己: 脈暴出者는 正氣因發泄而脫也 故로 死라
- 82) 尤怡: 若水病而脈出則 眞氣反出邪水之上이면 根本脫離而病氣獨勝 故 豆 死斗
- 83) 陳紀藩 主編: 中醫藥學高級叢書 金匱要略,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2000. p483
- 84) 陳紀藩: 此指小便量少라
- 85) 陳紀藩: 此形容脈沈之極하고 幷非指脈眞無라
- 86) 尤怡: 水氣는 足以潤皮膚而壅營衛 故로 面目鮮澤하고 且脈伏不起也라
- 87) 吳: 其人初由水穀不化津液하야 以成消渴하면 必多飲이니 多飲則水積 하고 水積則氣道不宣 故로 脈伏矣라 水蓄於內 故로 小便不利也라 其脈 沈絶即 伏脈也라
- 88) 尤怡: 必下其水 而通其脈이라
- 89) 十棗湯: 炒芫花 甘邃 大戟 各等分 爲粗末 强人每服一錢匕 贏人半錢 以 大棗十枚煮湯去滓 納藥末 平旦溫服 若下 病少除者 明日更服 加半錢 得

神佑丸, 舟車丸91)을 사용한 예가 있다.92)

第 11條. 下利後에 水氣病의 豫後

【原文】

問曰 病下利(1)後1)에 渴飲水하고 小便不利하며 腹滿因(2)腫 者2)는 何也3)오 答曰 此는 法當病水나 若小便自利하고 及汗出者 는 自當愈라

【校勘】

- 1) 病下利後: 『千金・卷二十一』에는 "有病下利後"로 되어 있다.
- 2) 腹滿因腫者: 『金匱玉函經二注・卷十四』, 『魏本』, 『金鑑・卷二十一』, 『直解』에는"腹滿陰腫者"로 되어 있어"陰腫"으로 한다.
- 3) 何也: 『千金・卷二十一』에는 "何故"로 되어 있다.

【註釋】

- (1) 下利: 泄瀉
- (2) 因: 襲也, 잇을 인

【國譯】

질문하기를 환자가 설사한 후에 갈증으로 물을 마시고 小便이 잘 나오지 않으며 腹部가 脹滿해 지고 陰腫이 발생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대답하기를 이것은 마땅히 水氣病이지만 만약 小便이 잘 나오고 땀을 흘리면 저절로 낫는다.

【考察】

下利한 뒤에는 陰氣가 없고 津液이 없으므로 물을 마시려하나 土氣가 虛하여 水를 제어하지 못하므로 小便不利와 腹滿이나타나며 浮腫이 발생한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 小便을 잘 보면 水氣가 아래로 나오고 땀을 내면 水氣가 밖으로 빠져나가서 水氣가 비록 모여 있으나 잘 운행되므로 병이 낫게 된다.93)

본문의 "因腫"을 『直解』등에 "脾는 濕을 싫어하기 때문에 腹滿이 되고 腎은 水를 주재하므로 陰腫이 된다."고 하였으며 "因腫"을 "陰腫"의 誤字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第 12條. 心水

【原文】

心水者1)는 其身2)重而少氣(1)不得臥하고 煩而躁3)(2)하며 其 人이 陰腫4)(3)이라

- 1) 心水者: 『尤本』에는 "心火者"로 되어 있다.
- 2) 其身: 『千金·卷四』에는 "其人身體"로 되어 있다.
- 3) 煩而躁: 『論注・卷十四』에는 "煩而燥"로 되어 있다.

- 90) 己椒醛黃丸: 防己椒目葶醛大黃丸. 防己 椒目 葶醛子 大黃 各一兩 為末 煉蜜爲丸 梧桐子大 先食飲服一丸 日三服 稍增
- 91) 舟車丸: 大黄二兩 甘邃大戟芫花青皮陳皮各一兩 牽牛子四兩 木香牛兩 爲細末 水泛爲丸 梧桐子大 每服六十至七十丸 白水送下
- 92)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9. p.403
- 93) 尤怡: 下利後에 陰亡無液 故로 渴欲引水而 土虚無氣하야 不能制水則 又小便不利腹滿因腫하야 知其將聚水爲病矣라 若小便利則從下通하고 汗出則從外泄하니 水難聚而旋行 故로 病當愈라 然이나 其所以汗與利 者는 氣內復而機自行也라
- 94) 沈明宗: 脾惡濕하니 是以腹滿이요 腎主水하야 是以陰腫이니 此는 爲病 水無疑라

快下利後 米粥自養

4) 其人陰腫: 『千金・卷四』에는 "其人陰大腫"으로, 『脈經・ 卷第八』에는 "其陰大腫"으로 되어 있다.

【註釋】

- (1) 少氣(소기): 말소리가 힘이 없거나 말하기 싫어하며 숨결은 약하면서 빠르고 권태감이 나는 것
- (2) 煩躁(번조): 가슴속이 달아오르면서 답답하고 편안치 않아 서 팔다리를 가만히 두지 못하는 증상
- (3) 陰腫(음종): 외생식기가 부은 것. 남성의 음낭이나 고환, 여성의 음호(陰戶, 膣口)가 부은 것을 말한다.

【國譯】

心水는 환자의 몸이 무거우면서 호흡이 미약하고 바로 눕지 못하며 煩躁症狀이 나타나고, 환자의 外陰이 붓는다.

【考察】

心水는 心陽虛로 인하여 水氣가 침범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心水는 현대의학의 心臟性水腫의 증상과 유사하다.95) 몸이 무거운 것은 火氣가 쇠약해지고 陽氣가 水氣를 이기지 못하여 전신을 순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水寒邪가 心을 범하여 陽氣가 충분치 못하면 少氣가 생긴다.96) 또한 누우면 水氣가 逆上하여 기침을 심하게 하기 때문에 눕지 못하며 心火가 內部에서 쌓이고 陰邪가 盛하여 陽氣를 거부하기 때문에 煩燥가 발생한다.97)

陰腫에 대하여 吳는 "腎水의 條文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錯簡"으로 보았으나,%》 李珳등%》 대부분의 주석가와 후대의 의가들은 心水에 陰腫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기술하였다.

본 조문의 "心水者"가 『尤本』에는 "心火者"로 되어 있다. 心은 원래 火에 속하지만 여기서는 문맥상 五臟水에 대해 언급 한 조문이므로 "心火"는 誤字로 사료된다.

본 조문에서 처방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苓桂朮甘湯100)과 茯苓甘草湯101)을 사용한 예가 있고,102) 또한 歸脾湯103)을 사용한 예가 있다.104)

第 13條. 肝水

【原文】

肝水者는 其腹1)大하고 不能自轉側하고 脇下腹痛2)하고 時時津液(1)微生하면 小便續通(2)이라

【校勘】

- 1) 其腹大: 『千金・卷四』에는 "其人腹"으로 되어 있다.
- 2) 脇下腹痛: 『千金・卷四』에는 "而脇下腹中痛"으로, 『脈經・卷第八』에는 "脇下囊中痛"으로 되어 있다.
- 95) 葉橘泉: 表照對名病西中 千頃堂書局 1955 p.13
- 96) 李奘: 心은 屬火屬陽하니 爲水氣湮鬱不伸則火衰而陽氣不剋運行周身 故로 身重也 & 少氣者는 水寒凌心하야 陽氣不充也라
- 97) 李芝: 內經에 云 水病者는 不得臥라하니 臥則水氣逆上하고 喘咳殊甚也 라 煩者는 心火內鬱이요 躁者는 陰盛格陽이라
- 98) 吳: 其人陰腫四字는 當在腎水條內이니 錯簡在此라
- 99) 李彣: 腎主水하고 其脈이 從肺出하고 絡心이니 心水而致陰腫이라
- 100) 苓桂朮甘湯: 茯苓四兩 桂枝三兩 白朮 炙甘草各二兩 水煎 去滓 分三次服
- 101) 茯苓甘草湯: 茯苓桂枝各二兩 炙甘草一兩 生薑三兩 水煎 去滓 分三次服
- 102) 吳大眞 等: 中醫辭海 上卷, 中國醫藥科技出版社, 北京, 1999, p.748
- 103) 歸牌湯: 白朮 茯苓 黃芪 龍眼 酸棗仁 各一兩 人蔘 木香 各半兩 炙甘草 二錢半 研末 每服四錢 加生薑五片 棗一枚 水煎服
- 104)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재편집 동의학사전, 까치, 서울, 1990. p.638

【註釋】

- (1) 津液: 소변을 가리킨다.105)
- (2) 小便續通: 小便이 단속적으로 나와 때로는 나오고 때로는 나오지 않는 것을 말한다.

【國譯】

肝水는 腹部가 脹大하고 스스로 몸을 돌리지 못하며, 脇下와 腹部가 아프고 때로 방광에 津液이 조금 생기면 소변을 볼 수 있다.

【考察】

肝病은 脾로 잘 전해지니 脾는 肝의 水邪를 받아서 운행되지 않으면 腫大하여 스스로 돌아누울 수 없고 옆구리는 肝經이 순행하는 곳이므로 脇下와 腹部가 아프게 된다.106) 대장은 津液을 主宰하니 肝氣가 조금 소통되면 陽明의 氣가 잘 소통되어 津液이 조금 생성되어 소변을 볼 수 있다.107)

肝水는 현대의학의 간경화복수와 증상이 유사하다.108)

본 조문에는 處方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柴胡疏肝湯109)과 胃苓湯110)을 합하여 사용한 예가 있다.111)

第 14條. 肺水

【原文】

肺水者는 其身이 腫하고 小便難하며 時時鴨溏(1)이라

【校勘】

1) 其身腫 小便難:『千金・卷四』에는"其人身體腫而小便難"으로 되어 있다.

【註釋】

(1) 鴨溏: 鶩泄, 오리똥같이 묽고 허여면서 검푸른빛의 설사를 하며 오줌은 맑은 증상(* 鴨: 小鳥也, 집오리 압 * 溏: 淖也, 진홁 당)

【國譯】

肺水는 환자의 몸이 붓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며 때로 大 便을 鴨溏으로 본다.

【考察】

肺는 通調水道하는데 肺에 水氣가 생기면 降下하지 못하게 되므로 水道가 通하지 못하여 全身이 붓고 소변도 보기 어렵 다.112) 때때로 小便과 大便이 함께 섞여 오리똥처럼 나오는 것은 폐와 대장이 表裏關系이므로 合이 되는 것(大腸)을 따라가기 때 문에 糟粕이 섞이게 되어 鴨溏이 나오게 된다.113)

본 조문에는 處方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越婢加朮湯이나 越婢湯, 補肺湯114)에 葶藶丸115)을 합하여 사용한 예가 있다.116)

¹⁰⁵⁾ 陳紀藩: 津液은 當理解爲尿 如 "膀胱者 州都之官 津液藏焉"之 "津液"同義

¹⁰⁶⁾ 尤怡: 肝病喜歸脾하니 脾受肝之水而不行則 腹大不能轉側也라 肝之府 在脇 而氣連少腹 故로 脇下腹痛也라

¹⁰⁷⁾ 徐彬: 大腸主津液하고 肝氣少舒하고 舒則陽明氣暢하니 津液微生而小 便續誦이라

¹⁰⁸⁾ 葉橘泉: 表照對名病西中 千頃堂書局 1955 p.13

¹⁰⁹⁾ 柴胡疏肝湯: 陳皮 柴胡 各二錢 川芎 枳殼 芍藥 香附 各一錢半 炙甘草 五分 水煎 食前服

¹¹⁰⁾ 胃苓湯: 甘草 茯苓 蒼朮 陳皮 白朮 官桂 澤瀉 豬苓 厚朴 爲粗末 每服五 鏒 加生薑五片 大審二枚 水前服

¹¹¹⁾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재편집 동의학사전, 까치, 서울, 1990. p.19

¹¹²⁾ 李芝: 肺主通調水道者也라 肺有水則 失其降下之職而水道不通하고 身腫便難矣라

¹¹³⁾ 衍義: 反從其合與糟粕混하야 成鴨溏也라

第 15條. 脾水

【原文】

脾水者는 其腹1)大하고 四肢苦(1)重하고 津液不生하고 但苦(1)少氣2)하며 小便難3)(2)이라

【校勘】

- 1) 其腹大: 『千金・卷四』에는 "其人腹"으로 되어 있다.
- 2) 但苦少氣: 『醫統』에는 "但若少氣"로 되어 있다.
- 小便難: 『金鑑・卷二十一』에는 "則小便難"으로 되어 있다.
 【註釋】
- (1) 苦: 困也, 四肢重으로 인해 힘든 것을 가리킨다. 괴로울 고
- (2) 少氣(소기): 氣가 부족한 것을 말한다. 말소리가 힘이 없거나 말하기 싫어하며 숨결은 약하면서 빠르고 권태감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國譯】

脾水는 腹部가 腫大하고 四肢가 무거우며 津液이 생겨나지 않아 입이 마르고 少氣證으로 괴로워하며, 小便을 잘 보지 못한다.

【考察】

脾經이 腹部로 들어가고 脾主四末하므로 腹大하고 四肢가무거워진다.117) 脾에 濕邪가 발생하여 운송되지 못하면 津液이만들어지지 않고 少氣證이 발생한다. 小便이 나오지 않는 것도 濕邪로 인해서 운행되지 못하기 때문이다.118)

본 조문에서 처방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蔘苓白朮散119), 補中益氣湯120), 實脾飮121)을 사용한 예가 있고122), 또한 補中治濕湯을 사용한 예가 있다.123)

第 16條. 腎水

【原文】

腎水者는 其腹大1)하고 臍腫腰痛2)하며 不得溺(1)하고 陰下濕(2)하야 如牛鼻上汗하고 其足逆冷하고 面反痩(3)라

【校勘】

- 1) 其腹大: 『千金・卷四』에는 "其人腹大"로 되어 있다.
- 2) 臍腫腰痛: 『醫統』에는 "臍腰腫痛"으로 되어 있다.
- 3) 其足逆冷 面反痩: 『千金・卷四』에는 "足爲逆冷 其面反痩" 로 되어 있다.

【註釋】

(1) 溺: 尿也, 오줌 뇨

- 114) 補肺湯: 五味子 蘇子 各一升 鍾乳 白石英 各三兩 竹葉 陳皮 款冬花 桂 心 茯苓 桑白皮 紫菀 各二兩 粳米二合 生薑五兩 杏仁五十枚 大棗十枚 麥門冬 四兩 先者 桑白皮 粳米 大棗 孰後去濟取汁前藥服
- 115) 葶藶丸: 甛葶藶 二兩 漢防己 海蛤 椒目 芒硝 赤茯苓 各一兩 研末 練蜜 為丸 如梧桐子大 每服三十丸 開水送下
- 116)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재편집 동의학사전, 까치, 서울, 1990. p.1098
- 117) 李芝: 脾經入腹하고 主四肢 故로 脾水腹大肢重이라
- 118) 尤怡: 脾濕不運則 津液不生而少氣라 小便難者는 濕不行也라
- 119) 蔘苓白朮散: 蓮子內 薏苡仁 砂仁 炒桔梗各一斤 白扁豆一斤半 茯苓 人 蔘 炒甘草 白朮 山藥各二斤 爲細末 每服二錢 棗湯調下
- 120) 補中益氣湯: 黃芪 炙甘草 各五分 人蔘 白朮 各三分 當歸身 二分 眞皮 升麻 柴胡 各二至三分 為細末 水前夫渣 食渣箱熱服
- 121) 實脾飲: 厚朴 白朮 木瓜 木香 草果仁 大腹子 附子 茯苓 炮姜各一兩 炙 甘草半兩 爲粗末 每服四錢 水一盞半
- 122) 吳大眞 等: 中醫辭海 中卷, 中國醫藥科技出版社, 北京, 1999, p.164
- 123)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재편집 동의학사전, 까치, 서울, 1990. p.417

(2) 陰下濕 : 囊濕, 음낭에 땀이 많이 나서 축축한 증상을 말한다.

(3) 瘦: 臞也, 여윌 수

【國譯】

腎水는 환자의 腹部가 腫大하고 배꼽부위가 부으며 허리가 아프고 소변을 보지 못하고 陰部가 습하여 마치 소의 코 위에 땀 이 난 것 같고 발이 차며 얼굴은 오히려 야위게 된다.

【考察】

腎은 水를 主宰하니 腎이 병들면 重陰이 되어 腹部가 脹大하고 하반신은 腎이 主宰하므로 배꼽부위가 붓고 허리가 아프다.124)

膀胱은 腎의 府이므로 소변을 보지 못하고 소변을 보지 못하면 水氣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여 陰囊을 적셔서 陰汗이되고 그 濕이 下焦로 흘러서 足冷하게 된다.125)

腎氣가 水氣에 막혀서 上部를 길러주지 못하므로 다른 臟腑 의 水病에 얼굴과 눈이 윤택한 것과 달리 어둡고 마르게 된다.126)

본 조문에서 위의 증상에 대한 처방을 언급한 것이 없으나, 五苓散127), 加減胃苓湯, 加味腎氣丸128)을 사용한 예가 있다.129)

第 17條. 水氣病의 治療原則

【原文】

師日 諸有水者에 腰以下腫하면 當利小便하고 腰以上腫하면 當發汗乃愈라

【國譯】

스승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水氣病에 허리 以下가 부으면 바로 利小便하여야하고 허리 以上이 부으면 땀을 내야 난다.

【考察】

본 조문에서 위의 증상에 대한 처방을 언급한 것이 없으나, 주로 임상에서는 腰以下腫에는 實脾散에 五皮散을 加하여 사용 하거나 壯原湯을 사용하고, 腰以上腫에는 人蔘敗毒散에 麻黃, 防 風, 黃芩, 梔子를 加하여 發汗시켜 치료한다.

第 18條. 水氣病의 形成機轉 및 氣分・血分・水分의 개념

【原文】

師曰 寸口脈이 沈而遲하면 沈則爲水요 遲則爲寒이니 寒水相搏1)이라 趺陽脈伏하면 水穀이 不化하니 脾氣衰則鶩溏(1)하고 胃氣衰則身腫이라 少陽脈卑(2)하고 少陰脈細하면 男子則小便不利하고 婦人則經水(3)不通이라 經爲血(4)이니 血不利則爲水를 名曰血分2)(5)이라

- 1) 寒水相搏: 『脈經・卷第八』에는 "寒水相摶"으로 되어 있다.
- 2) 名曰血分: 『脈經・卷第八』에는 名曰血分뒤에 "一云水分"

¹²⁴⁾ 徐彬: 腎原爲水主之하니 病水則爲重陰而腹大하고 身半以下腎主之 故 로 臍腫腰痛이라

¹²⁵⁾ 程林: 膀胱者는 腎之府 故로 令不得溺也라 以其不得溺則水氣不得泄か ・ 浸漬于睾嚢而爲陰汗하고 流注于下焦而爲足冷이라

¹²⁶⁾ 徐彬: 腎氣爲水所遏하야 不得上榮 故로 不若他臟之水病面目鮮澤이나 以反獨類이라

¹²⁷⁾ 五苓散: 五靈脂二兩 川烏一兩半 沒藥一兩 乳香五錢 爲末服

¹²⁸⁾ 加味腎氣丸: 炮附子 二個 茯苓 澤瀉 山茱萸 炒山藥 車前子酒蒸 牧丹皮 各一兩 官桂 川牛膝酒浸 熟地黃 各半兩 爲細末 煉蜜爲丸 梧桐子大 每 服七十丸 空腹米飲送下

¹²⁹⁾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재편집 동의학사전, 까치, 서울, 1990. p.623

이라는 細注가 있다.

3) 『尤本』, 『李芝』, 『補正』, 『魏本』에는 本 條文의 다음에 "師曰 寸口脈沈而數 數則爲出 沈則爲入 出則爲陽實 入則爲陰結 趺陽脈微而弦 微則無胃氣 弦則不得息 少陰脈沈而滑 沈則爲在裏 滑則爲實 沈滑相搏 血結胞門 其瘕不瀉 經絡不通 名曰血分 問曰病有血分水分 何也 師曰 經水前斷 後病水 名曰血分 此病難治 先病水 後經水斷 名曰水分 此病易治 何以故 水去 其經自下"가 있다.

【註釋】

- (1) 鶩溏(목당): "鴨溏(압당)"이라고도 함. 설사하는 대변에 물과 대변이 섞여 나오고 청홍색을 띄어 마치 오리 똥과 같음을 형용한 말이다. (* 鶩: 小鳥, 집오리 목 * 溏: 泥也, 진흙 당)
- (2) 少陽脈卑: 少陽脈은 手少陽三焦經의 和髎穴 부위의 動脈을 가리키는 것으로 少陽脈卑는 和髎穴 부위의 動脈이 沈하면서 弱한 것을 말한다.
 - (3) 經水: 月經
 - (4) 經爲血: 月經의 來源은 血이라는 뜻
- (5) 血分: 여자가 월경이 나오지 않은 후에 水氣病이 발생한 것을 말한다.¹³⁰⁾

【國譯】

스승께서 말씀하시기를 寸口脈이 沈하면서 遲하면 沈脈은 水氣가, 遲脈은 寒氣가 되니 寒氣와 水氣가 뒤엉켜서 水氣가 발생한다. 趺陽脈이 伏하면 水穀이 소화되지 않으니 脾氣가 衰弱하면 驚溏이 발생하고, 胃氣가 쇠약하면 몸이 붓게 된다. 少陽脈이 沈하면서 弱하고 少陰脈이 細하면 남자는 小便을 잘 보지 못하고, 婦人은 月經이 막힌다. 經水는 本來 血이니 血의 운행이 원활하지 않아서 水氣病이 되는 것을 血分이라 한다.

【考察】

唐은 水氣病의 發生機轉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寸口脈이 沈遲한 경우로서 寸口는 肺에 속하고 肺脈이 沈遲한 것은 寒水가 上焦에 침범하여 水腫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았고,131) 두 번째는 趺陽脈이 伏한 경우 이는 곧 脾胃의 氣가 衰弱해진 것이니 脾氣가 衰하면 穀氣의 消化가 잘 되지 않아 鶩溏이생기고, 胃氣가 衰하면 水氣를 運行하지 못하여 身腫이 발생하는 것132)으로 보았다. 세 번째는 少陽脈卑하고 少陰脈細한 경우이다. 少陽脈은 蹻脈의 앞쪽에서 진단되며, 少陽三焦는 배꼽아래의 關元부위 즉 여성의 胞宮, 血海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少陽이 脈卑하다는 것은 血海에 병이 들어 血이 운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少陰脈은 太谿穴에서 진단되며 腎과 膀胱이 診斷되는데 그脈이 細하면 腎・膀胱이 血少하여 水道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가지는 氣分에 속하며 마지막이 血分에 속한다고 하였다.134) 다른 醫家들은 寸口脈이 沈而遲하며 趺陽脈이 伏脈이 되어 水氣病이 발생하는 경우135)136)와 少陽脈痺와 少陰脈細해서 水氣病이 발생하게 되는 血分137)에 관한 두 가지 發生機轉으로 分類하였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한 것은 唐의 분류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으나 唐은 앞의 두 가지는 氣分에 속하며 少陽脈痺하고 少陰脈細하는 경우는 血分으로 구분할 수 있다138)고 하여 그 分類는 같다. 第 19條. 腎陽虛로 인한 水氣病의 治療

못하고 胞宮에는 血이 막혀 水氣가 쌓이게 되므로 男子는 小便 이 나오지 않고 여자는 月經이 나오지 않는다. 이처럼 月經은 血

로 이루어져 있으나 本體는 水로 이루어진 것으로 水病이 생겨 月經의 血이 운행하지 못하면 그 血이 水로 변하므로 이를 血分

이라 한다.133) 唐은 위와 같이 發生機轉을 分類하였으며 앞의 두

【原文】

問日 病者가 苦(1)水1)하야 面目身體四肢皆腫하고 小便不利 하니 脈之에 不言水하고 反言胸中痛하며 氣上衝(2)咽하야 狀如 炙肉(3)하면 當微欬喘이니 審(4)如師言이면 其脈이 何類오

師日 寸口脈이 沈而緊하면 沈為水2) 요 緊為寒이니 沈緊相搏 하야 結在關元하면 始時當微3) 하야 年盛不覺이나 陽衰之後에 榮 衛相干(5) 하고 陽損陰盛하야 結寒이 微動하고 腎氣上衝하야 喉 咽塞噎(6) 하고 脇下急痛4) 하리니 醫以爲留飲5) 而大下之면 氣擊 (7) 不去6) 하야 其病不除라

後重吐之7)면 胃家虚煩하야 咽燥8)欲飲水하고 小便不利하며 水穀不化하고 面目手足浮腫이라 又與葶藶丸하야 下水면 當時如 小差(8)나 食飲過度하면 腫復如前하고 胸脇苦痛하야 象若奔豚(9) 하며 其水揚溢則浮咳喘逆하니 當先攻擊하야 衝氣令止라야 乃治 欬요 欬止면 其喘自差니 先治新病(10)하고 病(11)當在後라

- 1) 苦水: 『脈經・卷第八』에는 "若水"로 되어 있다.
- 2) 沈而緊 沈爲水: 『金鑑・卷二十一』에는"沈則爲緊 沈則爲 水"로 되어 있다.
- 3) 始時當微: 『尤本』, 『論注・卷十四』에는 "始時尚微"로되어 있다.

¹³⁰⁾ 吳大眞 等: 中醫辭海 上卷, 中國醫藥科技出版社, 北京, 1999, p.1241 : 指婦人先有經水不通하고 而後得水氣病이라

¹³¹⁾ 唐宗海: 此는 分三節이니 寸口屬肺하고 肺脈沈遲則 爲寒水泛於上焦하 고 後務水腫牟니 爲第一段이라

¹³²⁾ 唐宗海: 趺陽脈伏하면 扶陽是足上胃脈이니 診脾胃者也라 脾主化穀하고 胃主化水하니 脾胃氣虚則水穀不化니라 水為陽하고 胃亦屬陽하니 水濕而胃燥하면 以陽從陽하고 以燥去濕 故로 胃之陽土主行水也라 穀為陰하니 有形質色味者는 皆陰類也라 脾亦屬陰하니 穀堅而脾濕足以濡軟之하고 以陰從陰하면 化液歸血分 故로 脾之陰土主化穀也라 脾氣衰則穀不化而鶩溏이나 不在水腫之例하고 唯胃氣衰則水不化而身腫이니此等水腫하야 與上段又不同也라 此爲第二段이나 然此兩段은 皆屬氣分하고 非血分也라

¹³³⁾ 沈明宗: 經難爲血이니 其體則水하고 況水病而血不行하야 其血亦化爲水 故豆 名曰血分이라

¹³⁴⁾ 唐宗海: …下一段少陽脈診於蹻前하고 少陽三焦起於臍下關元即 胞宮血海也라 少陽脈卑陷 則知其病在血海하고 其血不行也라 少陰脈診於太谿하고 本診腎與膀胱하고 今其脈細하면 亦是血少하야 脈爲血管이니 血少 故로 細이니라 腎與膀胱血少則 水道不活動하고 胞室血澀則 壅水 故로 男子小便不利하고 婦人經水不通이니라 觀經屬血分하면 血分滯則阻水하고 血從氣化하야 亦爲水病이니 雖在水而實發於血 故로 名曰血分이니 知血分之能致水則 氣血之理明矣라

¹³⁵⁾ 李定: 水性趨下 故로 脈沈이라 寒氣斂澁 故로 脈遅라 扶陽은 胃脈也라 伏則氣血凝滯 故로 水穀不化라 脾主運化하고 胃合肌肉이니 衰則土不 制水하고 陰寒氣勝 故로 一則驚瀬하고 一則身腫也라

¹³⁶⁾ 程林: 沈為水하고 遅為寒이니 水寒相搏則土敗矣라 是以胃之趺陽脈則 伏이라 是以胃之趺陽脈則伏하고 脾之水穀則不磨이니 脾衰則寒內着而 為鶩溏하고 胃衰則水外溢而為身腫也라

¹³⁷⁾ 程林: 少陽者는 三焦也라 內經曰 三焦者는 決續之官이니 水道出焉이요 今少陽脈卑則不能決續矣니 在男子則小便不利하고 少陰者는 腎也라

¹³⁸⁾ 唐宗海: 此分三節이니 … 然此兩段은 皆屬氣分이고 非血分也라 … 下 一段은 少陽脈診於蹻前이니… 故로 名曰血分라

4) 脇下急痛: 『金匱玉函經二注・卷十四』에는 "脇下結痛"으로 되어 있다.

5) 醫以爲留飲: 『金鑑·卷二十一』에는 "醫以爲流飮"으로 되어 있다.

6) 氣擊不去: 『尤本』, 『論注・卷十四』에는 "氣繫不去"로 되어 있다.

7) 後重吐之: 『尤本』, 『論注・卷十四』에는 "復重吐之"로 되어 있다.

8) 咽燥: 『論注·卷十四』에는 "咽噪"로 되어 있다.

9) 『醫統』에는 위의 조문이 없다.

【註釋】

(1) 苦 : 困也, 괴로울 고

(2) 上衝 : 위로 치밀어 오름

(3) 炙肉: 烤肉也 "구운 고기 덩어리"라는 뜻으로 氣가 치솟을 때의 증상을 형용한 말로서 환자의 목구멍에 구운 고기 덩어리가 걸린 것 같아 삼키려고 해도 삼켜지지 않고 뱉으려 해도 뱉어지지 않는다.

(4) 審 : 明也, 밝힐 심

(5) 干: 忤也, 거스를 간

(6) 塞噎 : 목이 막힘 (* 噎 : 飯室喉閉, 목맬 열)

(7) 氣擊(기격): 氣가 위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말한다.

(8) 差: 病瘉也, 병나을 차

(9) 奔豚: 腎積, 腎氣나 肝氣가 치밀어서 생긴다. 얼굴빛이 검고 아픔이 아랫배에서 발작하여 명치 밑까지 치밀어 오르는 것이 마치 돼지새끼가 뛰어다니는 것처럼 오르내린다고 하여 奔豚이라고 하였다. 배가 고플 때에 나타나고 배가 부를 때에는 작아지며 허리가 아프고 시력이 나빠진다. 병이 오래되어도 낫지 않게 되면 숨이 차고 기운이 치밀며 骨痿가 되는 수도 있다.

(10) 新病: 여기서는 衝氣, 咳喘病을 가리킨다.

(11) 病: 水氣病을 가리킨다.

【國譯】

문기를 환자가 水氣病을 앓아 얼굴, 눈, 신체, 四肢가 모두 붓고 小便을 잘 보지 못하니 환자의 脈을 짚어 보고는 水腫이라 말하지 않고 도리어 胸中痛이라고 말하며 환자의 氣가 치솟아 목구멍에 마치 구운 고기 덩어리가 있는 것 같다고 하면 당연히 경미한 咳嗽喘息이 있을 것이니 정말로 스승의 말씀과 같다면 그 脈은 어떠합니까.

대답하여 말하기를 寸口脈이 沈하면서 緊하면 沈脈은 水氣가, 緊脈은 寒邪가 있는 것이니 沈脈과 緊脈이 뒤엉켜서 뭉쳐 關元에 있으면 寒邪와 水氣가 응결되기 시작할 때는 아직 미약하여 한창 나이일 때는 자각하지 못하다가, 陽氣가 쇠약해진 후에 營氣와 衛氣가 조화롭지 못해 陽氣가 줄어들고 陰氣가 盛해져서 뭉친 寒氣가 조금씩 동요하고 腎氣가 치밀어 올라 咽喉가 막히고 脇下가 땅기면서 아프게 되어, 醫師가 이를 留飲으로 여겨 강하게 攻下하면 氣가 上衝하여 가라앉지 않아 병이 낫지 않는다. 다시 吐法을 강하게 쓰면 胃氣가 허약해져 煩躁해지고 咽喉가건조하여 물을 마시려 하며, 小便이 잘 나오지 않고 음식물이 소화되지 않으며 얼굴, 눈, 손발이 붓는다.

또한 葶藶丸을 투여하여 그 水를 攻下하면 당시에는 조금 차도가 있는 것 같지만,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이전처럼 水 腫이 발생하고 胸脇部가 몹시 아파 마치 奔豚과 같으며, 水氣가 위로 넘치면 浮腫, 咳嗽, 喘促, 上逆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이때 는 먼저 衝氣를 멎게 해야 咳嗽가 치료되고, 咳嗽가 그치면 喘息 은 저절로 나으니, 먼저 新病을 치료하고 水氣病은 마땅히 나중 에 치료해야 한다.

【考察】

條文의 "面目身體四肢皆腫 小便不利"는 일반적인 水氣病의 증상이다. 그러나 "胸中痛 氣上衝咽 狀如炙肉"한 것은 陽虛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으로 볼 수 있다. 寸口脈이 緊而沈하는 것은 關元에서 水氣와 寒邪가 서로 뒤엉켜 鬱結한 것을 의미한다. 발병초기에는 水와 寒의 鬱結이 미미하고 또한 건장한 나이이므로 氣가 盛하여 邪氣가 正氣를 이기지 못하여 아무것도 자각하지 못하다가 陽氣가 衰해지는 나이가 되어서는 숨어 있던 邪氣가 점점 營衛를 침범하여 陽氣는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陰邪는 점점 성하게 되어139) 그 뭉친 陰이 미동하기 시작하면 腎氣가 위로치솟아140) 咽喉가 막히고 脇下가 땅기고 아프다.141)

그러나 의사가 '腎氣上衝 喉咽塞噎 脇下急痛'한 것을 보고 陽虛의 증상을 實證인 留飮으로 잘못 진찰하여 下法을 사용하게 되면 낫지 않게 된다. 거기에 거듭 吐法을 사용하게 되면 中氣가虛損하게 되어 津液이 손상되어 목이 마르고 물을 마시려 하며142) 소변이 나오지 않고 水穀이 소화되지 않고 面目手足이 浮腫하게 된다. 이에 浮腫을 보고 葶藶丸을 사용하여 下法을 사용하면 잠시 차도가 보이지만 다 낫지 않은 상태에서 飮食을 過度하게 섭취하면 浮腫이 전처럼 다시 발생하고 胸脇이 아파서 마치 奔豚과 같다. 그렇게 되면 水氣가 더욱 많이 발생하여 肺까지 영향이 미치게 되어 咳嗽喘息하게 된다.

先治新病 病當在後은 衝氣를 먼저 치료하고 그 후에 水氣를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143) 衝氣는 陽虛에서 발생하므로 陽虛를 치료하면 衝氣가 그치게 되고 咳嗽喘息이 멈추게 된다.

葶藶丸으로 下法을 사용한 것은 그 根本을 치료한 것은 아니지만 標를 치료함으로 인하여 약간의 차도를 보인 것이다. 病의 근본은 腎에 있으므로 마땅히 먼저 衝氣가 그치도록 攻擊하여야 하며 그 후에 기침하는 것은 저절로 낫게 되는 것이다.144) 여기서 "攻擊"이라 하는 것은 "補腎陽 補腎水"하는 것을 의미한다.

第 20條. 防己黄芪湯證

【原文】

風水에 脈浮身重하고 汗出惡風者는 防己黄耆湯主之요 腹痛 에 加芍薬이라

¹³⁹⁾ 徐彬: 不知水氣中原不得有此證이라가 其先寸口脈必沈而緊하면 沈主有 微水하고 緊主有積寒이니 但緊而沈하면 是積寒挟微水搏結在關元이니 初時水與寒皆微이나 壯年氣盛이면 邪不勝正 故로 不覺이라가 陽衰則 所伏之邪하고 稍稍干于營衛하야 陽日就損하고 陰日加盛이라

¹⁴⁰⁾ 衍義:水寒屬腎이니 足少陰脈은 自腎上貫肝膈하고 入肺中하고 循喉嚨 하고 其支者從肺出絡心이니 注胸中하고 凡腎氣上逆하면 必衝脈與之幷 行하야 因作衝氣라

¹⁴¹⁾ 徐彬: 乃咽喉噎塞하고 脇下急痛이라

¹⁴²⁾ 李彣: 咽燥飮水는 因吐下後亡津液也라

¹⁴³⁾ 尤怡: 先治新病 病當在後者는 謂先治其衝氣而 後治其水氣也라

¹⁴⁴⁾ 徐彬: 以葶藶丸下水는 雖非治本之劑이나 然標病旣盛이니 先治其標 故 豆 亦能小差라 … 病本在腎 故로 曰先當攻擊衝氣하면 令止하고 … 咳 止하니 喘雖不治而自愈矣라

防己黃耆湯方1)

防己一兩 黄耆一兩一分 白朮三分2) 甘草半兩

右剉(1)하야 每服에 五錢匕3)를 生姜四片 棗一枚4)와 水盞半煎하야 取八分5)하야 去滓하야 溫服하고 良久(2)에 再服이라

【校勘】

- 1) 防己黃耆湯方 : 『金匱玉函經二注・卷十四』, 『魏本』, 『尤本』에 "防己黃耆湯方 方見濕病"으로 되어 있다.
- 2) 白朮三分: 『論注・卷十四』에는 "白朮三兩三分"으로, 『痙 濕暍病脈證治第二』에는 "白朮七錢半"으로 되어 있다.
- 3) 每服五錢七: 『論注・卷十四』에는 "每服五錢"으로 되어 있다.
- 4) 棗一枚: 『論注・卷十四』에는 "棗三枚"로 되어 있다.
- 5) 取八分: 『論注・卷十四』에는 "八分"으로 되어 있다.
- 6) 『醫統』에는 위의 조문이 없다.

【註釋】

- (1) 剉: 斬截, 토막칠 최
- (2) 良久(양구): 한참 있다가

【國譯】

風水病에서 脈이 浮하고 몸이 무거우며, 땀이 나면서 바람을 싫어할 경우는 防己黃耆湯으로 主治한다. 腹痛이 있으면 芍藥을 加한다.

防己黃耆湯方

防己一兩 黄耆一兩一分 白朮三分1) 甘草半兩

위의 약물을 썰어 매번 五錢匕의 분량을 떠서 生姜 四片과 대추 一枚를 넣고 물 한잔 반으로 8할이 되도록 달여서 찌꺼기를 버리고 따뜻하게 복용하고 한참 뒤에 다시 복용한다.

【考察】

風水病에서의 浮脈은 表證을 의미하고, 汗出惡風하는 것은 衛氣가 虛해서 表를 固攝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몸이 무거운 것은 水氣가 分肉에 침범하여 정체하였기 때문이다.145) 防己는 腠理를 통하게 하여 風邪나 水氣로 인한 浮腫을 치료하고, 黃耆는 分肉을 따뜻하게 하고 衛氣가 虛한 것을 補해주고, 白朮은 皮膚의 風邪를 치료하여 땀을 멎게 하며, 甘草는 이 처방의 모든 약들이 조화롭게 되도록 하며 脾胃를 돕고, 生薑과 大棗는 辛味와 甘味를 이용하여 發散하는 작용을 한다.146) 芍藥은 본래 收斂作用이 강하여 浮腫에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지만 여기서 腹痛에 넣는이유는 腹痛은 肝氣가 쌓여서 막혀 疏泄升降하지 못하기 때문에생긴 것이므로 肝陰을 수렴하여 柔肝作用을 하기 위해서이다.147)

本 條의 防己黃芪湯은 痙濕暍病脈證治第二에서도 나오는데 風濕이 表에 머물러 全身의 肌肉과 骨節이 아픈 경우에 사용하 였으니 본 方은 風濕으로 인한 全身痛과 全身浮腫에 사용된다. 本 條의 白朮三分은 誤謬로서 『痙濕暍病脈證治第二』에 나온 "白朮七錢半"이 옳다고 사료된다.

第 21條. 越婢湯證

【原文】

147) 張氏醫通・諸痛門: 腹痛者는 肝鬱氣塞不得升降이니 再加芍藥以收陰也라

風水에 惡風하고 一身悉(1)腫하고 脈浮不渴하며 續無汗出1) 하고 無大熱하면 越婢湯主之라

越姆湯方

麻黄六兩 石膏半斤 生姜三兩 大棗十五枚2) 甘草二兩

右五味를 以水六升으로 先煮麻黃3)하야 去上沫하고 內(2)諸 藥하야 煮取三升하야 分溫三服이라 惡風者는 加附子一枚炮4)하 고 風水엔 加朮四兩5)이라 古今錄驗(3)

【校勘】

- 1) 續無汗出: 『金匱玉函經二注・卷十四』, 『魏本』, 『尤本』, 『金鑑・卷二十一』에는 "續自汗出"로 되어 있는데 傷寒論 169條 越牌湯證에는 自汗出에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¹⁴⁸) "自汗出"로 國譯한다.
- 2) 大棗十五枚: 『金匱玉函經二注・卷十四』, 『尤本』에는 "大棗十二枚"로 되어 있다.
- 3) 先煮麻黄:『金匱玉函經二注・卷十四』에는"麻黄"으로 되어 있다.
- 4) 惡風者 加附子一枚炮: 『尤本』에는 "惡風者 加附子一枚" 로, 『金鑑・卷二十一』에는 "惡風 加附子"로 되어 있다.
- 5) 風水 加朮四兩: 『金匱玉函經二注・卷十四』에는 "風水者加白朮四兩"으로 되어 있다.
- 6) 『醫統』에는 위의 조문이 없다.

【註釋】

- (1) 悉 : 皆也, 모두 실
- (2) 內 : 入也, 들일 납
- (3) 古今錄驗(고금록험): 古今錄驗方. 50券. 唐代 甄立言이 撰함. 원서는 佚失되었는데, 그 중의 부분적 내용을 『外臺秘要』, 『醫心方』 등의 책에서 볼 수 있다.

【國譯】

風水病에 惡風이 발생하고 전신이 모두 부으며 脈象이 浮하고 갈증이 나지 않으며 이어서 저절로 땀을 흘리고 심한 熱이 없으면 越婢湯으로 主治한다.

越婢湯方

麻黄六兩 石膏半斤 生姜三兩 大棗十五枚 甘草二兩

위 다섯 가지 약물을 먼저 물 6升으로 麻黃을 달여서 위에 뜨는 거품을 없애고 나머지 약을 넣고 3升이 되도록 달여서 세 번에 나누어 溫服한다. 惡風하는 경우에는 附子 1枚 炮한 것을 넣고 風水病에는 白朮 4兩을 加한다. 古今錄驗에 있다.

【考察】

본 조문은 風邪는 많고 水氣는 적은 證이다. 風邪가 많아 表部를 침범하여 肌肉에서 반응하여 四肢로 넘치고 안으로는 胃와연결되어 水道를 조절하기 어려워지니 惡風하고 온 몸이 모두 붓게 된다.149) 風邪는 陽邪이고 脈浮한 것은 병이 表에 있고 또한 熱이 있음을 의미한다.150) 胃氣의 熱이 끓어올라 바깥으로 향

¹⁴⁵⁾ 衍義: 脈浮는 表也이고 汗出惡風은 表之虛也이고 身重은 水客分肉也이라 146) 衍義: 防己는 療風腫水腫하야 通腠理하고 黄耆는 溫分肉하야 補衛虛하 고 白朮은 治皮風止汗하고 甘草는 和約益土하고 生薑大棗辛甘發散이라

¹⁴⁸⁾ 蔡仁植: 『傷寒論譯詮』 高文社 1995 p.482 越婢湯은 上體나 一身이 모두 浮腫하고 脈浮하며 갈증이 있고 自汗出하며 惡風 小便不利 咳喘 의 경우에 越婢湯을 사용할 수 있다.

¹⁴⁹⁾ 沈明宗: 此는 風多水少之證也라 風多傷表하야 外應肌肉하고 內連及胃 故로 惡風一身悉腫이라

¹⁵⁰⁾ 徐彬: 風爲陽邪하고 脈浮爲熱이라

하게 되는데 裏熱이 심하지 않아 아직 津液이 손상되지 않았으므로 갈증이 나지 않는다. 바깥에서 열이 별로 심하지 않은 것은 表部에서 발생된 熱이 속으로 들어가 쌓이고 風邪가 밖으로 배출되며 땀을 흘리기 때문이다.151)

麻黃으로 陽氣를 소통하여 表部의 邪氣를 흩어버리고 石膏는 胃로 들어가 邪氣가 强하게 막혀버린 것과 風邪가 熱로 변한 것을 치료할 수 있다. 甘草와 生薑 大棗는 營衛를 조화롭게 한다. 惡風하는 것은 陽氣가 弱하여 衛氣가 虚해져서 表가 약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이때는 附子를 가미하여 表의 陽氣를 북돋아준다. 白朮은 濕邪를 몰아내는 것이다.152)

防己黃芪湯은 風水가 서로 뒤엉켜 表陽이 虛해진 때에 사용 하며, 越婢湯은 風水가 뒤엉켜 내부로 들어가 熱이 쌓인 경우에 사용한다.

第 22條. 防己茯苓湯證

【原文】

皮水爲病에 四肢腫하고 水氣在皮膚中하야 四肢聶聶動(1)者 는 防己茯苓湯主之라

防己茯苓湯方

防己三兩 黄耆三兩 桂枝三兩 茯苓六兩 甘草二兩1) 右五味를 以水六升으로 煮取二升하야 分溫三服이라

【校勘】

- 1) 甘草二兩: 『金鑑・卷二十一』에는 "甘草三兩"으로 되어 있다.
- 2) 『醫統』에는 위의 조문이 없다.

【註釋】

(1) 四肢聶聶動 : 四肢의 肌肉이 경미하게 떨리는 것을 가리킨다. (* 聶 : 木葉動貌. 나뭇잎이 흔들리는 모양 첩)

【國譯

皮水가 발생하여 四肢가 붓고 水氣가 皮膚中에 있어서 四肢 가 경미하게 떨리는 사람은 防己茯苓湯으로 主治한다.

防己茯苓湯方

防己三兩 黄耆三兩 桂枝三兩 茯苓六兩 甘草二兩

위 다섯 가지 약재를 물 6升으로 2升이 되도록 달여서 세 번에 나누어 溫服한다.

【考察】

본 조문은 邪氣가 皮膚에 머물러 붓는 것에 대해 설명하였다. 風邪가 衛分에 침입하여 陽氣 특히 脾陽이 虛해져서 水濕을運化하지 못하고 막히게 되면 四肢가 붓게 된다. 또 皮毛의 氣가虛해서 風邪의 침범을 받으면 浮腫이 생기는데 이는 水氣가 皮膚中에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邪氣와 正氣가 서로 뒤엉켜 싸워약해진 곳을 風邪가 괴롭히면 四肢가 바람에 나뭇잎처럼 흔들리는데 表陽이 虛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153)

肺와 三焦의 氣는 膀胱으로 함께 들어가서 水道를 運行시키니 水道가 運行되지 않으면 마땅히 소변을 보게하여 병을 없애야하는 것이므로 防己와 茯苓을 사용하여 濕을 제거하고 利水시켜야 한다.154) 桂枝는 發汗하고 表陽을 運行하며,155) 營衛를 조화하고 陽氣를 운행하여 四肢末端까지 견고히 하고, 風邪를 밖으로 몰아내고 水氣가 안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하는데,156) 茯苓과 함께 쓰이면 桂枝의 원래 특성인 發汗解表하는 성미가 나오지 않고반대로 行水하는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157) 또 黃耆와 甘草는 같이 사용하면 防己와 茯苓의 藥力을 움직이면서 表中의 氣를 돕게된다.158) 黄耆는 正氣를 기르고 表를 實하게 하는데 衛氣를 길러水邪가 머물지 못하고 스스로 흩어지게 만든다.159) 甘草는 土에해당하는 脾胃를 안심시키고 水氣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160)

第 23條. 越婢加朮湯證과 甘草麻黃湯證

【原文】

裏水엔 越婢加朮湯主之오 甘草麻黄湯亦主之라

越婢加朮湯方

見上方에 內加白朮四兩이라 方見脚中1)(1)

甘草麻黄湯方

甘草二兩 麻黄四兩

右二味를 以水五升으로 先煮麻黄하야 去上沫하고 內甘草하 야 煮取三升하야 溫服一升하고 重覆(2)汗出이요 不汗이면 再服 이요 愼風寒이라

【校勘】

1) 方內加白朮四兩 方見脚中: 『金匱玉函經二注・卷十四』에는 "方內加白朮四兩"으로, 『魏本』에는 "方內加白朮四兩 方見中風中"으로 되어 있고, 『尤本』에는 이 구절이 없다.

2) 『醫統』에는 위의 條文이 없다.

【註釋】

(1) 越婢加朮湯方: 『金匱要略・中風歷節病脈證幷治第五』에 있다. 肌肉의 熱이 극도로 심하고 몸의 津液이 모두 말라버리고 腠理가 열려 땀이 무척 많이 나고 厲風氣, 下焦脚弱의 증상에 사용한다. 麻黃二兩 石膏半斤 生薑三兩 甘草二兩 白朮四兩 大棗十五枚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의 약물을 먼저 물 六升으로 麻黃을 달여서 위에 뜨는 거품을 없앤 후에 나머지 약을 넣고 물 三升이되도록 달인 후에 따뜻하게 하여 세 번에 나눠먹는다. 惡風하면 附子炮 一枚를 넣는다.161)

¹⁵¹⁾ 黄: 續自汗出無大熱者는 表鬱作熱하야 熱蒸于內하고 風泄于外하니 是 以汗出而泄之未透 故로 外無大熱이라

¹⁵²⁾ 沈明宗: 以麻黄으로 通陽氣而散表하고 石膏는 入胃하야 能治氣强壅逆 風化之熱하고 甘草薑葉는 以和營衛이라 若惡風者는 陽弱而為衛虚 故 로 加附子하야 錄驗加出하고 並驅濕矣라

¹⁵³⁾ 沈明宗: 此는 邪在皮膚而腫也라 風入於衛하고 陽氣虚滯則 四肢腫하고 皮毛氣虚하고 受風而腫이니 所謂水氣在皮膚中하면 邪正相搏하야 風虚 内鼓 故로 四肢晶晶體動하니 是因表慮也라

¹⁵⁴⁾ 沈明宗: 蓋肺與三焦之氣는 同入膀胱而行決瀆이니 令水不行則 當使小便利而病得除 故로 防己茯苓으로 除濕而利水라

¹⁵⁵⁾ 李彣: 桂枝는 發汗行陽이라

¹⁵⁶⁾ 沈明宗: 桂枝는 以和營衛하고 又行陽化氣而實四末하고 傳風從外出하 고 水俗內洩矣라

¹⁵⁷⁾ 尤怡: 桂枝得茯苓則 不發表而反行水라

¹⁵⁸⁾ 尤怡: 且合黃耆甘草하면 助表中之氣하야 以行防己茯苓之力也라

¹⁵⁹⁾ 李芝: 黄蓍는 養正質表하고 以壯衛氣하야 衛氣壯則 水邪無所容而自散

¹⁶⁰⁾ 沈明宗: 甘草는 安土而制水邪라

¹⁶¹⁾ 金匱要略・中風歷節病脈證幷治: 千金方越婢加朮湯은 治肉極熱則 身體 津脱하고 腠理開하야 汗大泄하고 厲風氣下焦脚弱이라 麻黃二兩 石膏 半斤 生薑三兩 甘草二兩 白朮四兩 大棗十五枚 右六味를 以水六升하야 先煮麻黄하야 去沫하고 內諸藥하야 煮取三升하야 分溫三服이라 惡風 엔 加附子一枚炮라

(2) 覆: 上盖, 덮어 쌀 부

【國譯】

裏水에는 越婢加朮湯으로 主治하며 또한 甘草麻黄湯으로 主 治하기도 한다.

越婢加朮湯方

위의 越婢湯에 白朮 4兩을 加味한다. 脚氣篇 중에도 보인다. 甘草麻黃湯方

甘草二兩 麻黄四兩

위 두 가지 약을 먼저 물 5升으로 麻黄을 달여서 위에 뜨는 거품을 없애고, 여기에 甘草를 넣고 3升이 되도록 달여서 1升씩 溫服한 후 두꺼운 이불을 덮고 땀이 나야 하는데 땀이 나지 않으 면 다시 복용한다. 바람이나 寒氣를 조심해야 한다.

【考察】

裏水는 水氣가 피부의 안쪽에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水氣가 汎濫하여 全身과 얼굴과 눈이 심하게 부으며 沈脈, 小便 不利의 症狀이 있다.

越婢加朮湯은 腠理가 實하여 땀이 나지 않고 胃熱이 안쪽으로 들어갈 경우에 그 熱을 신속히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며162) 白朮은 燥濕시키는 효능이 있으며 땀이 나지 않으면 나게 하고 땀이 나면 그치게 할 수 있다.163)

甘草麻黃湯은 열이 없는 경우에 發汗시켜 水氣를 피부 밖으로 내보낼 때 사용하는 것164)으로 이 中 甘草는 麻黃이 發汗을 과도하게 시키는 것을 보좌하여 원만하게 만들어 준다.165)

第 24條. 麻黃附子湯證과 杏子湯證

【原文】

水之爲病에 其脈沈小하면 屬少陰하고 浮者는 爲風이요 無水 虛脹者는 爲氣라 水1)發其汗即已2)니 脈沈者는 宜麻黃附子湯이 요 浮者는 宜杏子湯이라

麻黄附子湯方

麻黄三兩 甘草二兩3) 附子一枚炮4)

右三味를 以水七升으로 先煮麻黄하야 去上沫하고 內諸藥하고 煮取二升半하야 溫服八分5)호대 日三服이라

杏子湯方(1)

未見이니 恐是麻黃杏草石膏湯6)(2)이라

【校勘】

- 1) 水: 『魏本』에는 "水病"으로 되어 있다.
- 2) 卽已: 『金匱玉函經二注・卷十四』에는 "則已"로 되어 있다.
- 3) 甘草二兩: 『論注・卷十四』에는 "甘草一兩"으로 되어 있다.
- 4) 附子一枚炮: 『尤本』에는 "附子一枚"로 되어 있다.
- 5) 溫服八分: 『尤本』, 『論注・卷十四』에는 "溫服八合"으로 되어 있다.
- 6) 未見 恐是麻黄杏草石膏湯:『醫統』,『金匱玉函經二注・卷十四』,『尤本』에는"缺 恐則麻黄杏仁甘草石膏湯"으로 되어 있다.

【註釋】

162) 淺注: 腠實無汗하고 胃熱內向이면 欲迅除其熱하야 越婢加朮湯主之라

- 163) 李彣: 且白朮은 功能燥濕하며 無汗能發하고 有汗又能止也라
- 164) 吳謙: 無熱者則 當用甘草麻黃湯으로 發其汗하야 使水外從皮去也라
- 165) 李疺: 甘草麻黄湯에 恐麻黄發汗過烈하고 佐甘草로 以甘緩之也라

- (1) 杏子湯: 吳는 "麻黄四兩 杏仁五十箇 甘草二兩炙 右水七升 先煮麻黄 減二升 去上沫 內諸藥 煮取三升 去滓 溫服一升 得汗止 服"이라 하였다.
- (2) 麻黃杏仁甘草石膏湯: 麻黃四兩 杏仁五十個 炙甘草二兩 生石膏半斤 발한시킨 다음 땀이 나면서 숨이 차고 열이 심하지 않으면 桂枝湯을 쓰면 안 되고 麻黃杏仁甘草石膏湯을 사용한다.166)

【國譯

水氣가 발병하여 환자의 脈象이 沈小하면 少陰에 속하고 浮脈인 경우는 風邪를 감수한 것이며 水氣가 없는데도 虛脹이 발생하는 경우는 氣脹이다. 水氣病은 發汗시키면 곧 낫는다. 脈象이 沈할 경우는 마땅히 麻黃附子湯으로 主治하고 脈象이 浮한경우는 마땅히 杏子湯으로 主治해야 한다.

麻黄附子湯方

麻黄三兩 甘草二兩 附子一枚炮

위 세 가지 약물을 물 七升으로 먼저 마황을 넣고 달여서 위에 뜬 거품을 제거하고, 나머지 약재를 넣고 二升半이 되도록 달여 八分씩 溫服하되 하루 세 번 복용한다.

杏子湯方

처방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麻黃杏草石膏湯인 것 같다.

【考察】

水氣病에 沈少脈이 나타나는 것은 足少陰腎의 陽氣가 不足하여 水氣를 制御하지 못한 것으로¹⁶⁷ 이는 正水에 해당된다. 또한 浮脈이 나타나는 것은 風邪가 外表에 머무르기 때문인 것으로¹⁶⁸ 風水에 해당된다.

水病은 腠理를 열어 發汗하여 水氣를 밖으로 배출하면 낫게 되니 麻黄이 要藥이 되는데169) 發汗을 시키더라도 脈沈할 경우 에는 麻黄附子湯을 사용하여 附子로 보좌하여 溫經시켜야 하고, 脈浮할 경우에는 杏仁으로 經絡을 疏通시키고 氣를 運行하여야 水氣가 저절로 없어진다.170)

"無水虛脹者 爲氣 水 發其汗卽已"에 대하여 "水"의 위치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吳謙은 "氣水"를 風水로 보아 發汗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171) 尤怡는 氣病과 水病으로 나누어 氣病을 發汗시켜서는 안되는 것으로 보았고172), 胡庚辰은 腹部에 水氣가 없는 氣脹으로 보아 氣脹과 水腫을 감별하는 것173)으로 설명하였다. 尤怡의 의견에 따라 "無水虛脹者爲氣 水發其汗卽已"로 하여 "水"는 뒤의 "發其汗卽已"와 함께 "水病은 發汗시키면 낫는다."로 해석하여야 한다.

¹⁶⁶⁾ 傷寒論儀說: 發汗後 不可更行桂枝湯 汗出而喘 無大熱者 可與麻黃杏仁 甘草石膏湯 麻黃四兩 杏仁五十個 炙甘草二兩 生石膏半斤

¹⁶⁷⁾ 李定: 少陰은 水臟也라 脈沈者는 水之性이요 小者는 陽氣不充 故로 聚 水為病이라

¹⁶⁸⁾ 李彣: 浮脈屬表하고 風自外至 故로 脈浮라

¹⁶⁹⁾ 李芝: 水病發汗則 腠理開하고 水氣泄而卽已하니 此麻黃爲通用之要藥 也이라

¹⁷⁰⁾ 李奖: 然脈沈者는 佐附子以溫經하고 脈浮者는 加杏仁以利氣하야 經行 氣利하면 水自消矣라

¹⁷¹⁾ 吳謙: 爲氣水之氣字는 當是風字라 …風水는 發其汗卽已하고 風水脈沈 者는 宜麻黄附子湯汗之라 脈浮者宜杏子湯汗之라

¹⁷²⁾ 尤怡: 其無水而虛脹者 則爲氣病而非水病矣라 氣病不可發汗하고 水病 發汗則已라

¹⁷³⁾ 胡庚辰評注 金匱要略: 張玉淸編著,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2000, p.284

杏子湯의 處方內容이 提示되어 있지 않고 이를 麻黃杏草石膏湯으로 여기고 있는 듯 하나 麻杏甘石湯은 煩渴과 喘咳를 主症으로 삼는 處方으로174) 水腫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며 吳謙이 杏子湯의 構成과 服用法을 "麻黃四兩 杏仁五十箇 甘草二兩炙 위의 약재를 물 七升으로 먼저 麻黃을 넣고 二升 정도가 줄도록 달여서 위에 뜬 거품을 제거하고 나머지 약을 넣고 三升이 되도록 달여서 찌꺼기를 버리고 一升을 溫服하며 땀이 나면 복용을 그친다."175)고 提示하였다.

第 25條. 蒲灰散證

【原文】

厥而皮水者는 蒲灰散主之라 方見消渴中(1)이라

【註釋】

(1) 蒲灰散: 蒲灰七分 滑石三分 상술한 두 가지 약물을 빻아서 분말한 후 1方寸ヒ씩 하루에 세 번 복용한다.¹⁷⁶)

【國譯】

手足厥冷이 발생하면서 皮水病을 앓는 경우는 蒲灰散으로 主治한다. 처방은 消渴篇 중에 보인다.

【考察】

厥은 手足厥冷을 뜻하나 吳謙은 '厥而' 두 글자가 衍文이라고 하였다.177) 蒲黃은 生으로 사용하면 行氣178) 破血消腫하고 볶으면 止血補血하는 기능이 있다.179) 本 處方의 蒲灰는 蒲黃의 다른 이름으로서 蒲黃이 본래 재와 비슷하여 그렇게 命名한 것이지 蒲黃을 볶아서 재로 만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蒲黃은 經絡의 막힌 것을 없애는 작용을 하여 小便이 나오게 하는 것으로 君이 되고, 滑石은 開竅하고 通水하니 疏通시키는 것으로 佐가 되어 小便이 잘 나오면 水氣가 下行하여 거슬러 올랐던 기운을 가라앉힌다.180) 이러한 이유로 蒲灰散은 手足厥冷의 증상과는 크게연관이 없이 단지 水氣가 皮膚에 침범한지 오래 되어 썩어서 생긴 진물 부위에 뿌려서 말리려고 蒲灰散을 사용하는 것이니181) 衍文으로 보았던 吳謙의 說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第 26條. 黃蓍芍桂酒湯證

【原文】

問曰1) 黄汗之爲病2)은 身體腫3)一作重하고 發熱汗出而渴4) 하야 狀如風水하고 汗沾衣(1)하고 色正黄如藥汁5)하며 脈自沈하 니 何從得之6)오 師曰 以汗出에 入水中浴하야 水從汗孔入得之니 宜耆芍桂酒湯主之7)라

- 174) 蔡仁植: 傷寒論譯詮, 高文社, 서울, 1995, p.399
- 176) 金匱要略・消渴小便不利淋病脈證幷治: 蒲灰散 蒲灰七分 滑石三分 上 二味를 杵爲散하야 飲服方寸匕하야 日三服이라
- 177) 吳謙: 厥而二字는 當是衍文이라
- 178) 本草綱目: 蒲黃은 生則能行하고 熟則能止라
- 179) 日華諸家本草: 破血消腫에 生用하고 補血止血에 炒用이라
- 180) 趙: 用蒲黄하여 消經絡之滯하고 利小便爲君이요 滑石은 開竅通水하여 通以佐之니 小便利則水下行하고 逆氣降이라
- 181) 吳謙: 水在皮膚하여 浸淫日久하면 必然腐潰而出水也라 當以蒲灰散으로 敷ク하여 以燥水也라

黄耆芍桂苦酒湯方8)

黄耆五兩 芍藥三兩 桂枝三兩

右三味를 以苦酒(2)一升과 水七升을 相和9)(3)하야 煮取三升하야 溫服一升하면 當心煩이라가 服至六七日에 乃解라 若心煩不止者는 以苦酒阻(4)故也라 一方엔 用美酒醯(5)로 代苦酒라

【校勘】

- 1) 問曰: 『脈經・卷第八』에는 이 구절이 없다.
- 2) 黄汗之爲病: 『脈經・卷第八』에는 "黄汗之病"으로 되어 있다.
- 3) 身體腫: 『脈經・卷第八』에는 "身體洪腫"으로 되어 있다.
- 4) 汗出而渴: 『脈經·卷第八』에는 이 구절 뒤에 "而渴一作不 渴"이란 注가 있다.
- 5) 藥汁: 『醫統』, 『脈經・卷第八』, 『金鑑・卷二十一』, 『論注・卷十四』에는 "蘗汁"으로, 『金匱玉函經二注・卷十四』, 『魏本』, 『尤本』에는 "柏汁"으로 되어 있다.
- 6) 何從得之:『脈經・卷第八』에는 "問日 黄汗之病 從何得之" 로 되어 있다.
- 7) 宜耆芍桂酒湯主之:『脈經・卷第八』에는"耆茋芍藥桂枝酒湯主之"로 되어 있고,『金匱玉函經二注・卷十四』,『尤本』에는"宜芪芍桂酒湯主之"로 되어 있고,『金鑑・卷二十一』에는"宜黃耆芍藥桂枝苦酒湯主之"로 되어 있고,『論注・卷十四』에는"宜黃耆芍藥桂酒湯主之"로 되어 있다.
- 8) 黃耆芍桂苦酒湯方: 『醫統』에는 "黃耆芍藥桂枝苦酒湯方" 으로 되어 있다.
- 9) 相和: 『尤本』에는 "相合"으로 되어 있다.

【註釋】

(1) 沾 : 染也. 젖을 점

(2) 苦酒:醋也. 식초(3) 和:合也, 합할 화

(4) 阻 : 隔也. 막힐 조

(5) 美酒醯: 鎭江紅醋이다.182)

【國譯】

문기를 黃汗病의 증상은 몸이 붓고 어떤 책에서는 身重이라고 하였다. 열이 나고 땀이 나면서 갈증이 나서 그 증상이 마치 風水와 같으며 땀으로 옷이 젖고 그 색이 누런 黃蘗汁과 같으며 脈象이 본래 沈하니 이 병은 무엇으로부터 얻은 것인가. 스승이 말씀하시기를 땀이 날 때 물에 들어가 목욕을 하여 水氣가 땀구멍으로들어가서 병을 얻은 것이니 마땅히 耆芪芍桂酒湯으로 主治한다.

黄耆芍桂苦酒湯方

黄耆五兩 芍藥三兩 桂枝三兩

위 세 가지 약물을 苦酒 1升과 물 7升을 섞은 것에 넣어서 3升이 되도록 달인 후 1升씩 溫服하면, 가슴이 답답하다가 6, 7일 간 복용하면 풀어진다. 만약 心煩이 멎지 않을 경우는 苦酒가 藥 力을 조해하였기 때문이다. 어떤 처방에는 美酒醯를 苦酒대신 사용하였다.

【考察】

몸이 붓는 것은 땀을 흘려 腠理가 열리고 이때 목욕을 하면 水氣가 虛한 틈을 타고 들어왔기 때문이며, 갈증이 생기는 것은

¹⁸²⁾ 胡庚辰評注 金匱要略: 張玉淸編著,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2000, p.287

津液이 운행되지 않기 때문이고 발열하고 땀이 黃蘗汁과 같이 노란 것은 濕熱로 인한 것이어서183) 風水와 비슷하다. 그러나 沈 脈이 나타나기 때문에 浮脈이 나타나는 風水와는 다르다. 桂枝는 陽氣를 운행하고 芍藥은 邪熱을 배설하고 黃耆는 腠理의 開闔을 도와주므로184) 黃耆芍桂苦酒湯으로 主治하였다.

본 조의 '藥汁'은 『醫統』, 『脈經』등의 "蘗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185)

第 27條. 桂枝加黃耆湯證

【原文】

黃汗之病은 兩脛(1)自冷하니 假令發熱하면 此는 屬歷節(2)이요 食已(3)汗出하고 又身常暮盜汗(4)出者1)는 此勞氣2)(5)也라 若汗出已에 反發熱者는 久久에 其身必甲錯(6)하며 發熱不止者는必生惡瘡이라 若身重하고 汗出已에 輒(7)輕者는 久久에 必身瞤(8)하니 瞤하면 卽胸中痛하고 又從腰以上은 必汗出3)하고 下는無汗하며 腰髋4)이 弛痛(9)하야 如有物在皮中狀이요 劇者는 不能食하고 身疼重煩躁하고 小便不利하니 此爲黃汗이라 桂枝加黃耆湯主之라

桂枝加黃耆湯方

桂枝三兩 芍藥三兩5) 甘草二兩 生姜三兩 大棗十二枚 黃耆二兩 右六味를 以水八升으로 煮取三升하야 溫服一升하고 須臾 (10)에 飲熱稀粥6)(11)一升餘하야 以助藥力하고 溫服(12)取微汗7) 이라 若不汗하면 更服(13)이라

【校勘】

- 1) 又身常暮盗汗出者:『醫統』,『脈經・卷第八』,『金匱玉函經二注・卷十四』,『魏本』,『金鑑・卷二十一』에는"又身常暮臥盗汗出者"로 되어 있고,『尤本』에는"又身嘗暮盗汗出者"으로 되어 있다.
- 2) 勞氣 : 『金匱玉函經二注·卷十四』, 『魏本』, 『論注·卷 十四』, 『脈經·卷第八』에는 "榮氣"로 되어 있다.
- 3) 即胸中痛: 『脈經・卷第八』에는 "則胸中痛"으로 되어 있다.
- 4) 腰髖: 『醫統』에는 "腰體"로, 『脈經·卷第八』에는 "腰寬" 으로 되어 있다.
- 5) 桂枝三兩 芍藥三兩:『醫統』,『金匱玉函經二注・卷十四』, 『尤本』, 『金鑑・卷二十一』에는 "桂枝二兩 芍藥二兩"으로, 『論注・卷十四』에는 "桂枝三兩 芍藥二兩"으로 되어 있다.
- 6) 飮熱稀粥: 『尤本』에는 "啜熱稀粥"로 되어 있다.
- 7) 溫服取微汗: 『醫統』, 『魏本』, 『金鑑・卷二十一』에는 "溫覆取微汗"으로 되어 있다.

【註釋】

- (1) 脛: 膝以下骨, 정강이 경
- (2) 歷節(역절): 歷節風. 숨이 가쁘고 절로 땀이 나며 어지럽고 게울 것 같으며 손가락이 오그라들고 뼈마디가 울퉁불퉁 부으면서 빠져나가는 것같이 아픈 병증으로 현대의학의 류마티스 관절
- 183) 李定: 汗出腠理開하고 入水浴則 水氣乘虚而入 故로 身腫이요 渴者는 津液不行也요 發熱하고 汗如柏汁은 濕熱外證也라
- 184) 李奖: 桂枝는 行陽氣하고 芍薬는 泄邪熱하고 黃耆는 實腠理以司開闔則 水氣無所容而自散矣라
- 185) 辭源: 黄柏や 黄蘗之俗瀉也라

염과 유사하다.

- (3) 已 : 畢也, 마칠 이
- (4) 盗汗(도한): 잠잘 때에는 땀이 나다가 잠에서 깨어나면 곧 땀이 멎는 병증
 - (5) 勞氣(노기): 虛勞를 말한다.
- (6) 皮膚甲錯(피부갑착): 皮膚가 潤澤하지 못하고 몹시 터실터 실하게 비늘처럼 일어나는 증상
 - (7) 輒: 忽然也, 문득 첩
- (8) 瞤(순): 開闔目數也. 여기서는 肌肉이 떨리는 것을 말한 다 186)
- (9) 腰髋弛痛(요관이통): 허리와 넓적다리가 늘어지며 아픈 것을 말한다.187)
 - (10) 須臾(수유): 잠시
 - (11) 粥: 糜也, 미음 죽
 - (12) 服 : 著衣也, 옷 입을 복
 - (13) 服: 飮也, 마실 복

【國譯】

黃汗病은 양쪽 종아리가 본래 寒冷하니 만약 종아리에 열이나면 이는 歷節風이다. 음식을 먹고 난 뒤에 땀이 나고 또한 몸이 항상 밤에 盜汗을 흘리면 虛勞病이다. 만약 땀이 난 뒤에 도리어 發熱하는 사람은 오래되면 皮膚가 甲錯하고 發熱이 그치지 않으면 반드시 惡瘡이 발생한다. 만약 몸이 무겁고 땀이 난 뒤에 문득 가벼워진 사람은 오래되어 반드시 몸이 떨리고 떨리면 胸中이 아프고 또 허리 이상은 반드시 땀이 나나 허리 아래는 땀이나지 않으며 허리와 엉덩이가 늘어지며 아파서 皮膚 안에 물건이 있는 듯 하고 심한 경우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몸이 아프고무거우며 煩躁가 나고 소변을 잘 보지 못하니 黃汗이 된다. 桂枝加黃者湯으로 主治한다.

桂枝加黃耆湯方

桂枝三兩 芍藥三兩 甘草二兩 生姜三兩 大棗十二枚 黃耆二兩 이상 여섯 가지 약재를 물 8升으로 3升이 되도록 달여서 1升씩 溫服하고, 잠시 뒤에 뜨거운 묽은 죽을 1升남짓 마셔서 약의 효 과를 돕고 따뜻하게 옷을 입어 땀을 조금 낸다. 만약 땀이 나지 않으면 다시 복용한다.

【考察】

黄汗은 黃柏汁과 같은 땀이 나며 水濕이 陽氣를 막아 下肢까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쪽 종아리가 冷하고 만약 下肢에 發熱하는 것은 歷節인데 이는 濕熱이 아래로 따라 내려가서 황색의 땀이 난다. 黄汗은 몸 전체에 황색의 땀이 나서 옷이 물들고, 歷節은 붓고 아픈 關節주변에서만 황색 땀이 난다. 黄汗은 종아리가 冷하고 歷節은 종아리에서 熱이 난다.188)

음식을 먹고 나거나 잠자는 사이에 盜汗이 발생하는 것은 虚勞 때문이다. 飲食을 먹자마자 땀이 나는 것은 胃氣의 根本이 부족하기 때문에 먹자마자 그 기운이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이고 저녁 무렵에 盜汗이 나는 것은 營陰이 體內에서 虛하여 收斂하

¹⁸⁶⁾ 陳紀藩: 此作肌肉掣動

¹⁸⁷⁾ 陳紀藩: 指腰與大腿上的筋肉松弛無力疼痛

¹⁸⁸⁾ 陳紀藩 主編: 中醫藥學高級叢書 金匱要略,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2000. p.504

지 못하고 陽氣가 堅固하지 못하여 陰液이 氣를 따라 밖으로 흘러나가기 때문이다.189)

땀이 난 뒤에 도리어 發熱이 나는 경우에 오래되면 精血이 枯竭하여 皮膚가 甲錯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가 낫지 않고 발열 이 그치지 않으면 열로 인하여 惡瘡이 발생한다.190)

黃汗은 熱이 鬱結되어 발생되는 것으로 땀을 내지 않으면 그 熱이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191) 그러므로 桂枝湯을 사용하며, 黃耆를 사용하는 것은 黃耆가 衛氣를 堅固하게 하여 邪氣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약을 服用한 뒤에 뜨거운 묽은 죽을 먹는 것도 땀을 내서 熱을 빼내기 위함이다.

본 條文은 歷節風의 치료에 대한 글로 誤認할 수 있으나 黃 汗과의 감별을 위하여 언급한 것이고, 歷節風의 치법은 『中風歷 節病脈證幷治弟五』에 따로 언급되어 있다.

第 28條. 氣分

【原文】

師曰 寸口脈이 遲而濇1)하면 遲則爲寒이며 濇爲血不足이요 趺陽脈이 微而遲하면 微則爲氣며 遲則爲寒이니 寒氣不足(1)하면 則手足逆冷하고 手足逆冷則榮衞不利하고 榮衞不利則腹滿脅鳴相 逐2)(2)하야 氣轉膀胱하고 榮衛俱勞하야 陽氣不通即身冷하고 陰 氣不通即骨疼하고 陽前通3)(3)則惡寒하고 陰前通4)則痹不仁(4)이 라 陰陽相得하면 其氣乃行하고 六氣(5)一轉5)하면 其氣乃散하니 實則失氣6)(6)요 虛則遺尿(7)니 名曰氣分이라

【校勘】

- 1) 遅而濇: 『金匱玉函經二注・卷十四』, 『魏本』, 『尤本』 에는 "遅而澀"으로 되어 있다.
- 2) 則腹滿脅鳴相逐: 『醫統』, 『魏本』, 『金鑑・卷二十一』 에는 "則腹滿腸鳴相逐"으로 되어 있어 國譯에는 이를 따른다.
- 3) 陽前通: 『金鑑・卷二十一』에는 "陽氣前通"으로 되어 있다.
- 4) 陰前通: 『金鑑・卷二十一』에는 "陰氣前通"으로 되어 있다.
- 5) 六氣一轉: 『醫統』, 『魏本』, 『尤本』, 『補正』, 『李本』에는 "大氣一轉"으로 되어 있어 이를 따른다.
- 6) 實則失氣: 『論注・卷十四』에는 "寒則失氣"로 되어 있다. 【註釋】
- (1) 寒氣不足 : 寒邪가 있고 氣血이 不足한 것을 말한다.192)
- (2) 逐: 說進不已, 나아가 그치지 아니할 축
- (3) 前通: 剪通의 뜻으로 不通의 뜻이다.193) (* 前: 가지런히 자를 전)
 - (4) 不仁(불인): 운동기능장애가 와서 쓰기가 불편한 병증.
 - (5) 大氣 : 膻中의 宗氣를 가리킨다.194)
- (6) 失氣(실기): 방귀195)
- 189) 李: 食已汗出은 胃氣外泄也라 日暮屬陰하고 盗汗爲陰虚하니 此屬勞氣 하고 以勞則氣耗 故로 令津液溢出而盗汗이라 亦非黄汗也라
- 190) 李: 發熱則 營衛不和하고 氣血銷鑠 故로 身甲錯이라 發熱不止則 熱蓄 腐爛 故로 牛惡瘡이라
- 191) 陳元犀: 黃汗은 本于鬱熱하니 得汗不能透徹則鬱熱不能外達이라
- 192) 陳紀藩: 指有寒而氣血不足이라
- 193) 李克光 金匱要略譯釋: 陽前通和陰前通卽指 營衛失調하야 不能諧行之 義라
- 194) 金匱要略譯釋: 大氣는 這裏指膻中之宗氣라
- 195) 陳紀藩: 此指矢氣라

(7) 遺尿(유뇨): 尿失禁. 오줌을 참지 못하여 절로 나오는 병증. 【國譯】

스승께서 말씀하시기를 寸口脈이 遲하면서 牆하면 遲脈은 寒邪가 있는 것이고 牆하면 血이 不足한 것이며, 趺陽脈이 微하면서 遲하면 微脈은 氣가 虛한 것이고 遲脈은 내부가 寒한 것이니, 내부가 寒하고 氣가 不足하면 手足이 逆冷하고, 手足이 逆冷하면 營氣와 衛氣의 운행이 원활하지 않고 營氣와 衛氣의 운행이 원활하지 않고 氣가 膀胱으로 가고 營衛가 모두 허약하여 손상되어 陽氣가 통하지 않으면 몸이 차갑고 陰氣가 통하지 않으면 骨節이 아프며 陽氣가 완전히통하지 않으면 惡寒하고 陰氣가 완전히통하지 않으면 몸이 저리고 잘 못쓴다. 陰氣와 陽氣가 조화를 이루면 氣가 이에 운행하고 大氣가 온몸으로 돌면 그 氣가 흩어지니 實하면 失氣가 되고 虚하면 遺尿가 되니 氣分이라 한다.

【考察】

寸口脈의 遲脈은 寒邪를, 濇脈은 血不足을 의미하며 趺陽脈의 微脈은 氣가 부족한 것을, 遲脈은 寒邪를 의미하니 寒邪와 血이 부족한 것을 뜻한다. 寒하고 氣不足하면 손발에 氣가 없어 厥冷하니 營衛의 根源이 없어 원활하지 않은 것이니 이는 臟腑의 眞氣가 충만하지 않아 侵犯한 寒邪만이 홀로 昇하여 腹滿과 脅鳴이 나타난다. 그래서 眞氣가 부족한 것이 膀胱에 전하여져 失氣와 遺尿가 발생된다.196)

"營衛俱勞"는 營衛가 모두 부족한 것이다. 陽氣는 表部를 따뜻하게 길러주므로 陰氣가 완전히 소통되지 않으면 痹不仁이 된다. 陰陽은 서로 順應하는 것이니 조화를 잃어서는 않되며 조화를 잃으면 氣의 運行이 이어지지 않아 邪氣가 침범하고 調和를 잃지 않으면 上下가 交通되어서 邪氣가 침범하지 못하므로 陰陽이 조화를 이루어 氣가 運行된다. 이로써 大氣가 운전되면 막힌 氣가 흩어진다.

氣分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婦人病의 일종으로 浮腫이 온 후에 月經이 온 것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寒氣가 陽이 허한 틈을 타고서 氣가 병들게 된 것¹⁹⁷)을 말한다.

第 29條. 桂姜草棗麻辛附子湯方

【原文】

氣分에 心則堅1)하야 大如盤(1)하고 邊如旋(2)杯(3)면 水飲所作2)이니 桂枝去芍藥加麻辛附子湯主之라

桂姜草棗麻辛附子湯方

桂枝三兩 生姜三兩 甘草二兩 大棗十二枚 麻黃二兩 細辛二兩 附子一枚炮

右七味를 以水七升으로 煮麻黃하야 去上沫3)하고 內諸藥하

¹⁹⁶⁾ 尤怡: 微則爲氣者는 爲氣不足也요 寒氣不足은 該寸口와 趺陽爲言이니 寒而氣血復不足也라 寒氣不足則 手足無氣而逆冷하면 營衛無源而不利 하야 由是臟腑之中에 眞氣不充而 客寒獨勝則 腹滿脅鳴相逐하야 氣轉 膀胱即 後所謂失氣하고 遺弱之端也라

¹⁹⁷⁾ 尤怡: 營衛俱勞者는 營衛俱管竭也라 陽氣溫于表 故로 不通則身冷하고 陰氣營于裏 故로 不通則骨疼이라 不通者는 虛極而不能行하고 與有餘 而壅者不同하니 陽前通則惡寒하고 陰前通則痹不仁也라 蓋陰與陽相順 也이나 不可失이면 失則氣機不續而邪乃着하고 不失則上下交通而邪不 容 故로 日陰陽相得하야 其氣乃行하고 大氣一轉하면 其氣乃散하야 失 氣遺弱니 皆相失之徵이니 日氣分者는 謂寒氣乘陽之虛而病于氣也라

야 煮取二升하야 分溫三服하면 當汗出如蟲行皮中卽愈라

【校勘】

1) 心則堅: 『脈經・卷第八』, 『金匱玉函經二注・卷十四』, 『魏本』, 『尤本』, 『論注・卷十四』에는 "心下堅"으로 되어 있어 이로 國譯한다.

2) 水飲所作: 『尤本』, 『論注·卷十四』에는 이 구절이 없다. 3) 以水七升 煮麻黃 去上沫: 『尤本』에는 "以水七各項 先煮麻 黃 去沫"로 되어 있다.

【註釋】

(1) 盤: 承槃也, 소반 반(2) 旋: 圓也, 둥글 선(3) 杯: 飲酒器也, 술잔 배

【國譯】

氣分病에 명치 끝이 단단하여 크기가 쟁반만 하고 주변이 잔처럼 둥글면 水飲으로 인한 것이니 桂枝去芍藥加麻辛附子湯으로 主治한다.

桂姜草棗麻辛附子湯方

桂枝三兩 生姜三兩 甘草二兩 大棗十二枚 麻黃二兩 細辛二兩 附子一枚炮

이상 일곱 가지 藥材을 물 7升으로 麻黃을 달여서 위에 떠있는 거품을 없애고 나머지 약재를 넣고 2升이 되도록 달여서 세 번에 나누어 따뜻하게 마시면 땀이 나서 마치 벌레가 피부에 기 어다니는 것과 같으면 낫는다.

【考察】

氣分은 寒氣가 陽의 虛한 틈을 타고 들어와 氣가 鬱結되어 水飲이 발생하여 맺힌 것이니 心下가 단단한 것이 쟁반만하고 주변이 잔처럼 둥글면 그 울결된 것이 매우 심한 것이다.198) 이는 心腎이 모두 병들어 위에 있는 것은 下降하지 못하고 아래에 있는 것은 上升하지 못하여 오래되면 쇠나 돌과 같이 깨기어렵다. 따라서 麻黃, 桂枝, 生薑으로서 上部에 맺힌 것을 풀어주고 附子와 細辛으로서 下部를 풀어주고 甘草와 大棗로서 中焦를 補하여 그 울결된 氣를 운행하면 上下의 氣가 交通하여병이 낫는다.199)

服藥한 뒤에 벌레가 피부 속을 기어 다니는 것과 같이 땀이 나는 것은 鬱結된 陽氣가 다시 운행되어서 나으려고 하는 것이다.200)

第 30條. 枳朮湯證

【原文】

心下堅하야 大如盤하고 邊如旋盤1)하면 水飲所作이니 枳朮 湯主之2)라

枳朮湯方

枳實七枚 白朮二兩

右二味를 以水五升으로 煮取三升하고 分溫三服하야 腹中耎

198) 尤怡: 氣分即 寒氣乘陽之虛而結于氣者니 心下堅大如盤하고 邊如旋盤 하고 其勢亦已甚矣라 (1) 卽當散也3)라

【校勘】

- 1) 邊如旋盤: 『論注・卷十四』에는 "邊如旋杯"로 되어 있다.
- 2) 枳朮湯主之:『脈經・卷第八』에는 "枳實朮湯主之"로 되어 있고, 『金鑑・卷二十一』에는 "枳實白朮湯主之"로 되어 있다.
- 3) 即當散也: 『論注・卷十四』에는 "即止"로 되어 있다.

【註釋】

(1) 耎: 柔也, 부드러울 연

【國譯】

氣分病에서 心下가 단단하고 크기가 쟁반만 하며 가장자리 가 쟁반처럼 둥글면 水飲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니 枳朮湯으로 主治한다.

枳朮湯方

枳實七枚 白朮二兩

이상 두 가지 약물을 물 5升을 붓고 3升이 되도록 달인 뒤에 세 번에 나누어 溫服하는데 腹中이 연해지면 곧 水飲이 흩어진 것이다.

【考察】

胃가 약하면 마신 물이 들어와 소화되지 않고 막혀서 맺혀 단단해지니 반드시 胃를 강건하게 하여야 그 막힌 것을 없앨수 있다. 白朮은 脾胃를 健康하게 하고 枳實은 心下의 막힌 것을 잘 없애고 水氣가 정체된 것을 몰아내고 血이 滯한 것을 흩는다.201) 앞의 桂枝去芍藥加麻辛附子湯과 枳朮湯은 水飲으로 인하여 心下 가 단단해져서 쟁반만 해지고 주변이 잔과 같은 경우에 사용하 나 桂枝去芍藥加麻辛附子湯은 心腎이 交通하지 못하여 발생된 水飲에, 枳朮湯은 脾胃가 虚弱하여 발생한 水飲에 사용한다.

第 31條. 防己黄芪湯證

【原文】

附方

外臺防己黃芪湯1)

治風水에 脈浮爲在表니 其人이 或頭汗出하고 表無他病하며 病者가 但下重하고 從腰以上爲和하고 腰以下當腫及陰2)하야 難 以屈伸이라

方見風濕中

【校勘】

- 1) 外臺防己黄芪湯:『外臺秘要・卷二十』에는 '木防己湯'으로 되어 있다.
- 2) 腰以下當腫及陰: 『醫統』에는 "腰以下當腫 腫及陰"으로, 『金匱玉函經二注・卷十四』에는 "腰以下爲腫及陰"으로, 『論 注・卷十四』에는 "腰已下當腫及陰"으로, 『補正』에는 "以下當 腫及陰"으로 되어 있다.

【國譯】

外臺秘要의 防己黃芪湯

風水에 脈象이 浮하면 病邪가 表部에 있는 것이니 그 환자

¹⁹⁹⁾ 陣元犀 金匱方歌括: 此證是心腎交病이니 上不能降하고 下不能升이니 日積月累이 如鐵石難破이니 方中用麻黄桂枝生薑으로 以功其上하고 附 子細辛으로 以功其下하고 甘草大棗로 補中焦以運其氣하야 庶上下之氣 交通而病可愈라

²⁰⁰⁾ 尤怡: 當汗出如蟲行皮中者는 蓋欲使旣結之陽腹行周身而愈也라

²⁰¹⁾ 趙以德: 心下는 胃土脘也라 胃氣弱則 所飲之水가 入而不消하야 痞結而 堅하니 必强其胃하야 乃可消痞라 白朮은 健脾强胃하고 枳實은 善消心 下痞하고 逐停水하고 散滯血이라

의 症狀은 혹 머리에서 땀이 나기는 하나 겉으로 나타나는 다른 病症은 없고 환자가 다만 下肢가 무겁고 허리 以上에는 불편이 없고 허리 아래는 陰部까지 부어 있어 구부리거나 펴기 어려운 경우를 치료한다. 처방은 風濕篇에 보인다.

【考察】

二十條의 防己黃芪湯은 風水의 脈浮身重 汗出惡風한 證狀에 사용하는데 본 條文에서는 다른 예를 들고 있다. 단지 머리에서 만 땀이 나고 다른 表證은 없으며 허리 위에는 불편이 없고 허리 아래 부위와 陰囊이 부위서 屈伸하기 어려운 것을 치료한다. 본條文에 "病者 但下重"이라고 되어 있으나 앞의 條文에 "脈浮身重"이 나와 있으므로 "下重"은 "身重"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外臺防己黃耆湯은 「痙濕喝病脈證治第二」에 있으며 또한 앞의 20條에도 있다.

총괄 및 결어

본 論文에서 考察되었던 內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第一條에서 "其腹如鼓"와 "其腹如故"의 校勘에서 "其腹如 鼓"가 타당하다. 第五條에서 "裏水"와 "皮水"는 같은 의미로 보 아야 한다. 또한 "黃腫"은 "洪腫"의 誤字이며, "越婢加朮湯主之" 를 "故令病水" 뒤로 옮기는 것이 내용상 타당하다. 본문의 "方見 下"는 『中風歷節病脈證幷治第五』를 가리킨다. 第九條에서 脈 出은 正氣가 發泄하여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脈이다. 第 十條에서 "脈伏"의 교감에서 "脈浮"는 본문에서 表證의 증상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脈伏"으로 한다. 第十一條에서 "咽腫"은 "陰腫"의 誤字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第十二條에서 "陰腫"은 外 陰이 부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第十三條에서 "津液" 은 小便을 가리키는 것이다. 第十八條에서 "少陰脈"은 和髎穴에 서 診脈한다. 第十九條에서 "先當攻擊"는 "먼저 補腎陽, 補腎水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며, 新病은 衝氣와 喘咳를 의미한다. 第二 十條의 "自朮三分"의 校勘에서 "自朮七錢半"이 타당하다고 사료 된다. 또한 風水 腹痛에 芍藥을 넣는 이유는 芍藥의 柔肝作用을 이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第二十一條와 第二十二條에서 두 處方 의 適應證이 비슷하지만, 防己黃芪湯은 風水가 서로 뒤엉켜 表陽 이 虛해진 때에 사용하며, 越婢湯은 風水가 뒤엉켜 내부로 들어 가 熱이 쌓인 경우에 사용한다. 第二十三條에서 "裏水"의 치료에 있어서 越婢加朮湯은 腠理가 實하여 땀이 나지 않고 胃熱이 있 을 경우에 사용하고, 甘草麻黃湯은 열이 없는 경우에 發汗시켜 水氣를 피부 밖으로 내보낼 때 사용한다. 第二十四條에서 "無水 虚脹者爲氣 水 發其汗卽已"에서 "水"의 위치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다. 尤怡의 의견에 따라 "無水虛脹者爲氣 水發其汗卽已"로 하여 "水"는 뒤의 "發其汗卽已"와 함께 "水病은 發汗시키면 낫 는다."로 해석하여야 한다. 第二十五條에서 "厥而"는 衍文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第二十六條에서 "藥汁"은 "蘗汁"의 誤字이 다. 第二十八條에서 氣分은 본래 浮腫이 온 후에 月經이 온 것을 말하는 것이나 本 條文에서는 氣分을 腹滿脇鳴, 身冷, 骨疼, 惡 寒, 痺不仁, 失氣, 遺尿의 증상을 겸한 것을 말한다. 이는 寒氣가 陽虛한 틈을 타서 침범하여 中氣가 허약해지므로 手足厥冷하고 腹滿하게 되는데 營衛가 고갈되어 失氣나 遺尿증상이 나타나게된다. 第二十九條에서는 浮腫의 治療方法으로 利水法을 사용하지 않고, 上下의 氣를 疏通시키고 中焦를 다스려주는 처방으로浮腫을 치료하였다. 第三十條에서 枳朮湯은 脾胃가 虚弱하여 발생한 水飲에 사용하고, 第二十九條의 桂枝去芍藥加麻辛附子湯은心腎이 交通하지 못하여 발생된 水飲에 사용한다. 第三十一條에서 "下重"은 "身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本篇은 水氣病의 脈象,病因,症狀,구체적인 治法과 함께 氣分,血分을 언급하며 氣,血,水의 相關關係를 밝히고 水氣病의 發生機轉과 辨證治療에 대하여 논하였다.

水氣病의 發病은 그 原因인 風, 水, 濕, 熱 등으로 인하여 陽氣가 衰弱하게 되어, 水氣가 運化되지 않고 全身으로 넘치게 되어 발생하며, 또한 肺, 脾, 腎 三臟의 機能異常이 三焦, 膀胱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어 발생한다. 특히 여러 관련 臟腑 중에서腎臟은 浮腫 특히 水氣와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어 "基本在腎, 즉 그 根本이 腎에 있다."라고도 한다.

本 篇은 水氣病을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였고 그에 따른 치법 및 처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하였다.

첫 번째로 水氣가 정체된 부위와 원인, 그 주요증상에 따라 風水, 皮水, 正水, 石水, 黃汗으로 분류하였다.

風水는 風邪와 水氣가 서로 뒤엉키고 속에서 쌓이게 되어 熱이 發生하고 바람을 싫어하고 몸 전체가 부으며 脈이 浮하고 갈증이 없고 땀을 흘리면서 열이 심하지 않은 것인데, 風邪를 없애고 水氣를 흩어버리면서 열을 식혀야 하므로 越婢湯으로 치료해야 하고, 혹시 濕邪가 같이 있으면 燥濕하는 白朮을 더하여 越婢加朮湯으로 치료해야 한다. 만약 肺氣가 펼쳐지지 못하고 水濕이 表部에 정체하면 얼굴이 붓고 기침을 하게 되는데, 杏子湯으로 宣肺發汗의 治法을 이용하여 치료해야 한다. 만약 衛氣가 虚하여 脈이 浮하고 몸이 붓고 땀이 나며 바람을 싫어하면 補氣固表하고 宣肺利水시켜야 하므로 防己黃芪湯으로 치료한다.

皮水는 風邪와 寒邪가 表部에 같이 있으며 肺氣가 펼쳐지지 못한 경우에 頭目이 붓고 기침을 하며 땀이 나지 않고 惡寒한 증 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發汗宣肺利水시켜야 하므로 甘草麻黃湯으로 치료한다. 만약 陽氣가 고갈되고 水濕이 내부에 정체하게 되 면 四肢가 붓고 바람에 나뭇가지가 떨리듯 몸이 떨리는데 陽氣 를 다시 흐르게 하여 水濕을 氣化시켜 없애기 위해서 防己茯苓 湯으로 치료한다. 水濕이 내부에 정체되고 안에 熱이 쌓이게 되 면, 몸이 붓고 손으로 누른 곳이 다시 올라오지 않으며 바람을 싫어하지 않고 腹部가 북처럼 부으며 갈증이 나지 않는 증상이 발생한다. 그 후 시간이 지나 陽氣가 쇠해지면 四肢가 차갑게 되 는데 蒲灰散을 사용해서 치료한다. 蒲灰散은 經絡이 막힌 것을 풀어주고 小便이 나오게 하는 것을 君으로, 開竅通水해서 疏通시 키는 것을 佐로 하여 구성된 處方으로서, 小便을 잘 나오게 하여 거슬러 올랐던 기운이 下行하는 水氣를 따라 가라앉는다.

正水는 水濕이 體表에 있고 腎陽이 不足하여 몸이 붓고 차며 요통이 발생하는데 發汗利水하고 溫補腎陽하는 麻黃附子湯으로 치료한다.

黃汗은 衛氣가 虛하고 營衛가 조화롭지 못하고, 거기에 濕熱이 서로 들끓어서 발생하는 것으로, 누런 땀이 흐르고 몸이 붓고열이 나며 갈증이 생기는데, 益氣固表하고 營衛를 조화시키고 열을 끄고 濕을 제거할 수 있는 芪芍桂酒湯을 사용한다. 만약 營衛가조화롭지 못하고 衛氣가 虛하고 濕邪는 쌓이고 陽氣가 고갈되면, 黃汗이 나타나며 몸이 무겁고 아프며 혹은 떨리기도 하고 胸中痛, 腰以上에서만 땀이 나고 허리와 골반이 당기며 잘 먹지 못하게 되는데, 煩躁하고 小便을 보기 어려울 때에는 營衛를 조화시키고 表部를 굳건히 하며 水濕을 없애는 桂枝加黃耆湯으로 치료한다.

두 번째로 水病과 五臟과의 관계에 따라 肝水, 心水, 脾水, 肺水, 腎水로 분류하였는데, 五臟이 虛해진 틈을 타서 水邪가 머물게 되면 그 臟器의 病理症狀으로 구분하였다.

肝水는 脇下腹痛을, 心水는 少氣不得臥하여 煩躁한 것을, 脾水는 복부가 크게 붓고 四肢가 무겁게 되는 것을, 肺水는 때때로 오리 똥 같은 설사를 하는 것을, 腎水는 허리가 아프고 소변이 나오지 않으며 陰囊이 축축한 것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세 번째로 病勢에 따라 氣分, 血分, 水分으로 구별하였다.

氣分의 경우 陽虛하고 陰邪가 응체되어 寒水가 서로 뭉쳐서 발생하는데, 症狀으로는 명치끝이 단단하고 크기가 대야만 하며, 가장자리가 엎어놓은 잔과 같고 숨이 가쁘고, 붓고 手足이 차고 배가 그득하고 뱃속에서 소리가 들린다. 이는 溫陽散寒하여 水飲 을 제거해야 하므로 桂枝去芍藥加麻辛附子湯을 사용한다. 만약 氣가 막히고 脾가 虛하고, 水氣와 邪氣가 서로 뒤엉키게 되는데 이는 理氣健脾하고 化飲除濕하는 枳朮湯으로 치료한다.

水氣病의 治療에 있어 『素問』의 이론에 근거하여 허리이 상은 發汗시키고, 허리이하는 利小便시키는 것202)을 실제 치료에서의 중요한 근간으로 삼아 치료한다고 하였으며 虛症일 경우에는 사용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脈에 대한 언급에 있어서 살펴보면, 趺陽脈의 변화로 水氣病과 脾胃와의 관계를 논하였다. 趺陽脈은 胃經脈으로 보는데 원래 伏脈이지만 緊脈이 나타나면 寒邪가, 敷脈이 나타나면 熱邪가 발생한 것으로 진단한다. 또한 寸口脈을 肺로, 少陰脈을 腎으로 보고 診脈하여 肺와 腎의 機能失調로 인하여 水氣病이 발생하는 것을 설명하였다. 또한 水氣病에 脈이 가라앉지 않고 반대로 위로 뜨고 밖으로 흩어지며 旺盛하게 나타나지만 그 뿌리가 없는 脈象이 나타나면 죽는다고 하였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仲景은 3條의 寸口脈과 頸脈, 6條의 趺陽脈, 8條의 少陰脈과 18條의 少陽脈을 언급하고 診脈한 것으로 미루어 이미 한 부분의 脈에 국한되지 않고, 寸口, 人迎, 和髎, 太谿, 衝陽脈을 모두 診察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仲景은 후대의 三部九候脈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다양한 脈을 보았다고 사료된다.

水氣病은 그 자체만으로도 질병이므로 치료 대상이 되고, 또한 동시에 여러 가지 다른 질환에 의해서 수반되어 진찰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 다른 질환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는 한의학에서만이 아니라, 서양의학에서도 그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다. 서양의학에서는 간경변 등의 만성 질환의 경우 다리가 붓거나 복수

202) 素問: 湯液醪醴論에 開鬼門 潔淨府하고 陰陽應象大論에 其高者 因而越 之 其下者 因而竭之라

가 찰 수 있고, 만성 신부전 등 신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심장이 펌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경우, 갑상 선 기능 이상이나 심장으로 혈액을 보내는 정맥이 막힌 경우, 그 리고 여러 약제들에 의한 부작용의 경우, 또한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부종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浮腫의 직접적인 원인은 水液代謝의 장애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본다면 만성적인 질환뿐만이 아니라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질환의 診斷의 尺度로도 활용될 수 있다. 만성적인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肝, 心臟, 腎臟에 관련된 질환이므로 중요하고, 더욱이 浮腫이 나타난 환자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거나 상당히 나빠진 상황으로 변화하더라도, 浮腫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어 간과되기 쉽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고 살펴야 하겠다.

『千金要方』, 『諸病源候論』, 『外臺秘要』 등의 醫書에 水腫의 病理와 治療에 本篇의 내용을 많이 引用하고 後世 醫家 들이 水氣病의 辨證과 治療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이를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浮腫은 그 자체로는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이 많다고 할 수 없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한다면 다른 질환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에는 중요한 尺度가 되므로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앞으로도 水氣病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더욱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 1. 張仲景 著, 趙開美 校刊. 仲景全書·金匱要略方論. 臺北, 裕昌 德書局, 1960.
- 2. 魏荔彤. 金匱要略方論本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 3. 尤怡. 金匱要略心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4. 吳謙. 醫宗金鑑·訂正仲景全書·金匱要略注. 北京, 人民衛生 出版社. 1996
- 5. 陳念祖. 金匱要略淺註. 台南, 綜合出版社, 1990.
- 6. 唐宗海. 金匱要略淺注補正. 臺北, 力行書局有限公司, 1994.
- 7. 曹家達. 金匱要略發微. 臺北, 志遠書局, 2003.
- 8. 蔡仁植. 金匱要略精解. 大邱,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 1982.
- 9.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 10. 陳紀藩 主編. 中醫藥學高級叢書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 11. 王叔和. 影宋版 脈經. 大板, 東洋醫學研究院, 1981.
- 12. 巢元方 著, 南京中醫學院編. 諸病源候論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 13. 孫思邈 著, 李景榮 등 校釋. 備急千金要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 14.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 15. 王氷.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 16. 王燾. 外臺秘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 17. 王懐隱 等. 太平聖惠方. 서울, 翰成社, 1978.
- 18. 朱橚 撰. 普濟方. 서울, 大星文化社, 1995.
- 19. 趙佶. 聖濟總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 20. 李芝. 金匱要略廣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 21. 許俊.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3.
- 22. 楊思澍, 張樹生, 傅景華. 中醫臨床大全.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1.
- 23. 趙以德, 周楊俊. 中國醫學大成·傷寒金匱分冊 金匱玉函經二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 24. 陳夢雷 等編. 醫部全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 25.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4.
- 26. 張玉清 編著. 胡庚辰評注 金匱要略.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0.
- 27. 成百萬. 脈經의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연구. 益山, 圓光大學校 大學院, 2000.
- 28. 成無己. 注解傷寒論.
- 29.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譯釋. 상해,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6.
- 30. 蔡仁植. 傷寒論譯詮. 서울, 高文社, 1985.
- 31. 孟雄在. 傷寒論概說. 익산, 圓光大學校出版社, 1996.

참고사전

- 1. 張三植. 大漢韓辭典. 서울, 集文堂, 2001.
 - 2. 民衆書館編輯局. 漢韓大字典. 서울, 民衆書林, 1984.
 - 3. 中國語大辭典編纂室. 中韓辭典. 서울,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89.
 - 4. 商務印書館編輯部. 辭源. 香港, 商務印書館, 1987.
 - 5. 金赫濟・金星元. 明文漢韓大字典, 서울, 集文堂, 1991.
 - 6.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재편집 동의학사전. 서울, 까치, 1990.
 - 7. 謝觀.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高文社, 1987.
- 8.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增訂 韓醫學大辭典. 서울, 정담, 2001.
- 蔡仁植,權賢德,邊元九. 漢方醫學用語大辭典. 서울,癸丑文化 社,1983.
- 10. 吳大眞 總編. 中醫辭海. 中國醫藥科技出版社, 北京, 1999.
- 11. 謝觀. 新編 中國醫學大辭典. 서울, 여강출판사, 2001.
- 12. 江克明, 包明蕙. 校訂方劑大辭典. 서울, 醫聖堂, 1991.